

宗旨를 통한 大巡眞理會의 目的論 研究

安鍾沄*

目次

緒論	2. 神人調化의 可能根據
本論	3. 神人調化의 現代的 省察
I. 陰陽合德論	III. 解冤相生論
1. 宇宙 構造原理로서의 陰陽	1. 典經上의 冤의 由來
2. 陰陽 順理와 逆理	2. 相生의 道 倫理의 길
3. 後天 人性改造論	IV. 道通眞境論
4. 後天文化時代를 위한 陰陽文字 調和論	1. 天命을 完遂한 先天道通聖人 李舜臣
II. 神人調化論	2. 後天道通眞境論
1. 調化論	結 論

緒論

한 나라, 한 國民, 한 民族의 優劣을 평가하자면 그 文化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로써 결정될 것이다.

文化도 物質文化 精神文化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兩文化가 균형있게 발전해야 올바른 文化國家로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21世紀가 一年 후에 개막된다하여도 文化觀만은 바뀔 수 없으며 오히려 未來가 변칙적으로 불균형 발전하는 경향에 우려스럽기도 하다. 物質文化만을 一方的으로 고도 발전하는 未來는 半偏文化로서 病도 文化期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을 치료하는 精神文化 그 중에서도 人間性을 더욱 도야하는 道

*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德 倫理 宗教文化가 조속히 선양되어야 하겠다. 道德과 倫理는 精神科學에 바탕을 두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宗教의 경우 精神科學이 아닌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여기에 장황한 논설을 열거할 성질이 아니지만 宗教는 科學이 아니라는 전제를 설정하고 넘어 가기로 한다. 그 증거 한가지만 든다면 세계에 수많은 宗教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科學과 비교하는 대표적 事例로서 物理學 文學 數學이 나라마다 다르다거나 時代에 따라 변경될 수 없으므로 科學의 속성을 확인 할 수 있으나 各 宗教는 設立한 敎派에 따라 다양한 것을 보아도 普遍妥當性和 客觀性を 屬性으로 하지 않는다.

여기 宗教의 임무와 책임을 생각치 않고 自派의 宗教의 敎勢를 확충하기 위해서 甘言利說로 민중을 현혹하고 布敎를 위해서 황당무계한 설교하는 宗教지도자들을 많이 본다.

宗教를 분류하는 기준은 科學에 근거했는가 아닌가 있지 않고 文化宗教인가 非文化宗教 즉 似而非 宗教 迷信으로 구분된다.

文化宗教와 非文化宗教는 歷史性으로 즉 長久한 지속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성질은 아니다. 물론 오랜 기간 是認되어 왔다고 하겠으나 客觀的이며 普遍妥當하게 是認되지 못 하였다면 敎理가 不動의 眞理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既成 宗教의 문제점을 극복한 새로운 次元의 宗教가 人類의 소망을 실현하는데 큰 몫을 한다면 新文化宗教라는 先入感의 잘못을 청산해야 할 것이며 新興宗教는 歷史 발전에 그 역할이 지대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新興宗教 중에는 「宗教는 사람이 만든 것, 나도 새로운 宗教를 만들어 敎主가 될 수 있다」는 不敬하고 獨善心理로 宗教를 創立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世態가 어지러울수록 雨後竹筍같이 新興宗教가 亂立한다. 이 많은 新興宗教 가운데 新文化宗教가 얼마나 되겠는가?

물론 量的으로 따질 성질은 아니지만 新興宗教가 많을수록 비례하여 新文化宗教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이 답은 결코 경솔하게 내릴 수 없으며 質的으로 新興宗教人 가운데 얼마나 眞實한 사람 즉 「眞人」이 있는가가 답할 따름이다.

眞實한 사람이 추구하는 新興宗教는 비록 客觀적으로 普遍妥當하게 是認은 못되었어도 언젠가 眞理가 밝혀져 本人이 혜택을 받을 것이고 못 사람에게 은혜가 확대될 것이다.

既成宗教 가운데 文化宗教로 공인되고 있는 몇 宗教의 경우 객관적 입장에서 時間적으로 空間적으로 有利하다 해서 無缺한 것은 아니다. 既成宗教 人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人生과 宗教」라는 大主題 앞에서 宗教生活이 깊어지면 할수록 人生 편에서 출발하여 宗教 편으로 비중이 무거워져서 主體와 客體가 전도해진다는 사실이다. 즉 人生이 主體인가 宗教가 主體인가에서 당연히 人生이 主體요 宗教는 客體인 것이, 人生은 客體요 宗教는 主體가 된다. 宗教를 위한 人生으로 主從의 原則이 또 目的格과 從屬格이 바뀐다.

文化宗教라면 마땅히 모든 文化가 人生이 人生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文化임을 不動의 事實로 인정한 이상, 主體 人生의 위치가 바뀌어서는 않된다. 끝내 人生 위한 宗教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文化宗教가 된다.

物質文化는 人間이 창조하고 활용하다가 오히려 만든 物質道具에 위협받고 人類 파멸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다가 온다고 하여 危機 末世라 부르게 된 것을 보면 그 자체만으로는 有益한 文化 역할을 못 한다.

이제 主體文化로서의 精神文化 중에서 宗教가 文化의 機能을 하기 위해서는 「人生과 宗教」의 大題 앞에서 흔쾌히 從屬格의 위치에 내려가 人生을 만족하게 해주어야 한다.

既成宗教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고 自他가 공인하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提言은, 人生과 宗教의 전제에 主從의 原則을 전도하지 말 것을 再三 강조하는 바이다.

唯一神이던 創造主神이던 있다고 신앙하더라도 가장 소중한 것은 人生 各者요 神도 造物主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人生이 神과 造物主를 신앙하게 된 것은 必要해서 요청한 要請的 存在요 實在的 存在가 아니다.

人生은 종도(從徒)로서 모든 榮光은 하나님(하느님)에게 돌리고 人生은 오직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受動者요 加護를 거듭 앙원하기 위해서

宗教가 필요했다.

佛敎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既成宗教는 人生을 弱者로 前置하고 加護와 祈福을 위해서 宗教의 존재 가치가 있었다.

이제 歷史 발전과 함께 宗教도 발전해야 하겠으니 受動宗教가 能動宗教로 역전해야 하겠다.

榮光을 하나님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功든 塔 나의 업적 이요 恩分の 榮光 내가 거두는 것이 正當한 소득이며 보수이다.

宗教가 발전했다면 弱者의 宗教에서 强者의 宗教가 되는 일이다.

그런 宗教가 있는가?

바로 甌山の 敎理이다.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시대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선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다.』¹⁾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²⁾

先天時代는 弱肉强食하는 無法 無道時代였으나 歷史가 開明하였다면 惡退 善進 惡沒善生하는 時代가 와야 한다.

退沒하고 進生하는 것은 天地의 理法이나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人間의 歷史는 人間의 自造自業이요 무엇에도 돌릴 수 없는 것이다.

곧 自主史觀 主體史觀이라 하겠다.

先天時代는 從屬史觀이 지배하던 때였었기 때문에 强者가 法이었었다. 따라서 善者는 弱者였었고 惡者는 强者였었다.

先天時代의 宗教 또 한 弱者 人生은 하나님 天主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언제나 굴복해야 했다.

人生은 태어났다는 자체를 得罪로 결정하며 罪人으로 自認했다.

1) 典經 : 교법 제2장 55절

2) 典經 : 교법 제2장 56절

너무나 굴욕적 人生觀으로 자학한 宗教였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罪를 지은 者 自身이 惡漢이기 때문이요 그에 상응한 罰을 받아야 하며 善人은 그 心性이 善良하여 행실이 매사마다 善業을 쌓아 幸福이 증진한다는 原理, 天地의 理法에 例外일 수 없다.

이것이 正常이며 天地人의 正軌道에 진입한 것이다.

車도 車道를 운행해야 무사고 하나 車道를 이탈하면 大小 사고를 자초하듯 人生도 無法 無道한 변칙적 惡漢의 一方 통행은 결코 오래가지 못 한다.

그래서 甌山은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선으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고 하였다.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도다」고 한 言明은 先天時代인 현대까지의 變則 歷史觀을 뜯어 고쳐 罪 지은 者 罰을 받아 再過가 없도록 根絶하여 善만이 장구하게 지속될 世相을 구조 개혁하였다는 뜻이다.

先天時代는 歷史적으로 불완전한 시대요 미숙한 시대이나 언제까지 미숙하고 불완전하겠는가. 果實도 미숙한 열매가 때가 되면 완숙하듯 人類의 歷史도 미숙기에서 결실기가 있을 것이다. 그 歷史의 結實期가 後天時代라 하겠다.

甌山の 後天思想은 바로 實質文化가 開明하여 不正과 非理가 청산된 純善 無惡한 社會를 도과한 사상이다.

이어서 人尊時代임을 宣布하였음은 人權思想史에 있어서나 宗教史的 측면에 있어서나 革命的 宣言이 아닐 수 없다.

「天尊과 地尊보다 人尊이 크니 이제는 人尊時代다…」의 宣言은 東西洋史上 四大 聖人이 있고 그 중 두 사람은 既存 兩大 宗教의 教祖라 하나 後覺을 위해서 天尊 地尊보다 人尊이 至尊하다는 가르침은 없었다. 물론 佛敎는 造物主도 唯一神이나 하느님을 가정하지 않고 오직 唯心哲學의 바탕에서 棼心 宇宙心 統一心을 깨우쳤음은 認定하나, 크게 아쉬운 것은 無我的 大覺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老子 또한 無我를 도과하였으나 無爲를 강조하고 自然으로 돌아갈 것을 궁극적 目的境으로 제시하였다.

釋迦牟尼나 老子의 공통 目的境은 無慾 無我에서 大宇宙로 還元한 大我的

體驗이라 할 수 있다.

兩大 思想家는 西敎와 달리 철저한 無神論者였으므로 依他主義 從屬主義는 찾아 볼 수 없으며 主體主義로 일관한 점은 弱者를 위주로 한 宗教도 哲學은 아니나 공통된 先天的 結점은 消極的 宗教요 哲學이라는 점이다.

無爲 無我 自然主義는 곧 無文化主義로 환원한다.

現下 高度의 文化 발전을 위해서 赫赫한 경쟁이 눈부신데, 無慾 無爲 自然主義는 古代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太古로 환원하라는 格이니 先天도 初創先天期를 동경함이라 할 수 있어 甌山의 後天論과는 너무나 격차가 크다.

甌山의 깨우침은 未來指向의 歷史觀에서 가장 소망스런 文化의 典型을 실현하도록 분발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고 하였다.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함은 「無欲」, 「無爲」와는 相反된 「옹고 해야 할 일을 旺盛한 意慾으로 분발하라」는 것이다.

새 世相인 後天世界가 열리는데 어찌 태만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겠는가 함이다.

「善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도다」하는 말 속에는 善意志를 굳세게 관철하려는 사람의 앞 날에 막는 者 없으니 소신껏 밀고 갈 때 榮光만이 보장된다는 勇氣를 북돋우는 希望의 소리이다.

歷史 이래 어떤 既成宗教에서 들을 수 있는 格言인가.

21世紀라고 하는 새로운 歷史가 개막되는 시점에서 획기적 新文化 창조 할 기틀이 韓國에서 짜졌으니 後天道通으로 眞境이 열린다는 敎理는 哲學的으로 妥當하고 人類가 기대하는 希望의 未來像이다.

甌山의 敎理를 信奉하는 大巡眞理會의 宗旨는 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인바 既成宗教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革新的인 後天宗教의 역할은 하는가 各論에서 詳說하기로 한다.

I. 陰陽合德論

1. 宇宙 構造原理로서의 陰陽

모든 宗教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알고 있어 信仰이 어느 정도로 독실한가에 따라 참된 宗教人인가 수준급이하의 종교인인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할 정도이다.

그 만큼 宗教는 믿고 안 믿을 自由를 전제로 成立 不成立이 결정된다. 때문에 宗教는 客觀性和 普遍妥當性を 요구하지 않으며 그것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學問 즉 科學과 이질적으로 구별된다고 앞서 말하였다.

그러나 宗教가 科學性を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科學性を 구비한다면 眞理로운 宗教임을 확인하는데 더욱 유리할 것이다.

아직까지 오랜 전통을 자부하는 宗教들도 모든 사람에게 그 宗教는 누구도 眞理임을 부인하지 못 한다고 주장하지 못 한다. 만일 自己가 믿는 宗教가 절대 眞理라고 강조한다면 그에 동조하거나 수긍하기보다 狂信者라고 비난할 것이므로 自派 宗教의 敎理를 「絶對 眞理」라고는 하지 못 한다.

이 만큼 宗教는 科學과 類를 달리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人類의 文化 더욱 큰 발전할 때 현재까지의 學問과 宗教의 영역으로 만족치 않고 확대되어 宗教적으로 믿었고 소망한 사실이 실현되고 확인되는 날 또 科學적으로 상상하던 세계가 立證되어 眞理가 확장될 것이다.

宗教와 科學이 이렇게 영역을 고집하지 말고 宗教는 科學의 도움을 받고 科學은 宗教의 도움을 받아 참 삶과 眞理의 世界를 넓혀 가는 것이 人類史의 進歩라 하겠다.

宗教의 경우 進歩的 文化 宗教가 되기 위해서는 敎理와 修行에 固定과 我執 獨善을 버리고 겸손과 관용 성실로써 眞理의 길을 개척하기 科學者처럼 전념해야 한다.

大巡眞理會라는 宗團은 그 名稱으로 보아 어떤 學術研究機關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大巡眞理」를 연구하기 위해서 「모인(會) 단체」라 해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宗教로써의 名稱이 學術研究會를 연상케 한다면 名實相符해야 할 터인데 大巡眞理會 宗旨 一條가 「陰陽合德」을 제시하였다는

점, 「소망」과 「믿음」으로 일관하는 既成宗教의 次元을 넘어섰다.

陰陽은 宇宙의 實相이요 構造原理이며 合德은 正陰 正陽하기를 내세웠다.

宇宙萬象치고 陰陽으로 構成되지 않음이 없고 虛象이 아닌 實象이라면 陰과 陽이 결합하여 存在하게 되었으므로 全存在의 存在方式이라 하겠다.

그러나 「있는 것」도 바르게 있는 것과 삐뚜러지게 있는 것도 있는 바, 바르게 있을 때 正陰 正陽으로 存在함이요 삐뚜러지게 있을 때 不正陰 不正陽으로 存在함이다.

陰陽合德은 있는 것은 모두 올바르게 있어야 즉 正直하게 存在하라는 가르침이다.

아직까지 先天時代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諸般事가 正常的으로 있지를 않고 非正常的으로 있고 運行되고 運營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子息이면 마땅히 父母에게 낳아 사랑스럽게 길러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孝道하는 것이 正常인데, 반대로 父母는 당연히 자기가 낳은 子息 기르고 가르쳐 독립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책임져야 하고 요구 조건은 모두 들어 주어야 한다고 항의한다면 正常이 아니다.

오늘날 孝를 애타게 부르짖고 孝子를 찾아 표창하는 것을 보면 孝子가 많지 않다는 反證이다.

거듭 老子의 말씀 「六親 不和 有孝慈」가 절실하여 진다.

老子는 二千五百餘年前 사람인데 그 때도 不孝子가 많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규를 하였을 것이다.

『不尙賢，使民不爭。不貴難得之貨，使民不爲盜。不見可欲，使民心不亂。是以聖人之治，虛其心 實其腹。弱其志，強其骨。常使心無知無欲，使夫知者，不敢爲也。爲無爲，則無不治』(老子 道德經 3章)

賢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다 다툰 것이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요, 취득하기 어려운 보배나 재화를 귀하게 생각지 않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을 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함이요, 갖고자 하는 욕심이 움틀 만한 것은 들추어 내는 일이 없어야 백성들이 心亂스러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聖人の 政治는 마음을 비우고 실질로 채우며, 意志는 부드럽게

하고 實踐力은 강건하게 한다.

언제나 백성들로 하여금 無知 無欲케 하며 知性人들도 造作을 일삼지 않도록 한다. 무릇 強行 폭력 정치를 안하면 아니 되는 일이 없는 順理政治가 실현된다고 하였다.

老子가 無爲 自然主義를 주장하는 까닭은 人間의 마음은 욕심으로 작용하여 過慾이 더욱 팽창하면 상호 쟁탈전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人心의 過慾이 正常을 非正常으로 조작하여 變態世相이 되어 가게 한다. 變態世相이 順理롭게 運行하는 萬事를 逆理로 逆轉케 한다.

그래서 聖人の 政治는 백성들로 하여금 慾心이 동하지 않도록 虛心 無慾 無爲할 것을 강조하였다. 虛心 無慾이라 해서 空虛를 의미하지 않고 「實其腹」하고 「強其骨」할 것에 핵심이 있었다.

自然은 虛無 空白의 眞空상태가 아니라 森羅萬象으로 가득 차 있는 實相界이다. 人間界처럼 欲界가 아니라 純粹하고 素朴하며 털끝만한 거짓없는 眞實界가 自然이다. 그래서 太初이래 宇宙的 平和가 의연히 베풀어지며 人間の 조작이 없다면 영원한 미래까지 계속될 것이다. 왜 그럴까?

自然은 宇宙的 正陰 正陽이 和合하여 生成하기 때문이다.

『天地의 큰 德은 생이라 한다.』³⁾

道德은 人間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最大의 道德은 宇宙의 德이요 그것은 끝없는 “生成作用”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어떻게 해서 生成이 이루어지는가?

『한 陰과 한 陽이 있으니 이것을 道라 이르고 이 陰陽의 道를 계승하는者 착하다(善)하며, 陰陽으로 이루어진(形成)것을 性이라 한다.』⁴⁾

天地의 氣가 왕성하여 만물이 순박하고 풍요로우며, 男女의 精氣가 합하여 萬生命이 태어난다.』⁵⁾

生成作用하는 宇宙의 뜻은 大善이라 아니 할 수 없고 大善이기에 大德인

3) 『天地之大德曰生』(繫辭上 第一章)

4)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繫辭上 第五章)

5) 『天地絪縕,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繫辭下 第五章)

것이다. 이러한 大善을 베푸는 원인을 살필 때 宇宙라는 最大 存在의 원칙적 構造方式이 一陰과 一陽으로 兩立되었으나 그 兩立이 對立으로 對決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리워 相對를 기다리는 待對的 關係여서 드디어 結合하여 새로운 創造를 하는 변화의 연속이다.

宇宙內 삼라만상의 個體 하나 하나가 이렇게 탄생되어 그 生成方式으로 새로운 二世 三世등 끝없는 새 모습의 存在者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 宇宙不變의 法則인 一陰 一陽의 道요 이것이 易哲學의 基本原理이다.

2. 陰陽 順理와 逆理論

宇宙內 全存在者의 存在樣式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質的으로 量的으로 兩面性으로 구성된 事實을 易學에서는 「陰·陽」으로 파악하였다.

陰陽은 待對의 原理가 작용하여 結合하지 않을 수 없고 結合하면 새 生命이 탄생되어 宇宙는 이렇게 영원히 生成變化한다는 사실은 과거에도 옳았고 현재도 무궁한 미래까지 지속할 옳은 法則이므로 眞理이다.

陰과 陽이 待對의 原理에 따라 相合함을 「陰陽合德」이라 이르고 人生도 이 宇宙의 大德이요 理法인 陰陽合德을 실천하면 「繼之者善也」(周易)의 敎訓대로 善良하고 幸福하게 살 수 있다는 大巡眞理會의 宗旨는 全人類에게 두루 적용되는 統一된 眞理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西洋哲學의 경우 古今을 일관하는 西洋 基本思想이라 할 辨証法의 始祖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 BC 541~475)는 宇宙의 모든 「萬物은 流轉한다」고 파악 變化流轉을 宇宙의 實相이라고 한 점은 周易의 견해와 같으나, 왜 流轉하는가에 관해서 「투쟁은 萬物의 아버지요 王이다」라 하여 萬物의 存在樣相을 「對立」에서 찾았고 對立은 相反者이기에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영원한 敵手요, 투쟁을 통해서 生成 發展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生成觀이 2천 수 백년간 계승되면서 헤에겔(Hegel 1770~1831)에 의하여 正·反·합의 論理 辨証法이 완성되고 西歐人의 公式的 思考方式化 되었으며 西洋思想史를 송배하는 東洋知性人들까지 意識化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公正하게 평가하여 보아도 兩立된 雙方이 陰陽의 關係처럼 서로 필요로 하는 調和의 相對로 보아야 하는가, 異質者라하여 서로 타도(打倒)의

敵對者로 보느냐에 따라 영원한 平和냐 戰爭이냐로 歷史의 進路를 달리하게 됨을 안다. 이 점에 관해서는 筆者가 제1집 「世界化時代와 生成倫理의 要請」에서 民主主義를 투쟁으로 쟁취하려는 일부 大學生 敎員勞組 직장 勞組員들의 辨証法的 의식구조를 크게 비판한바 있어 더 이상의 부연은 줄이기로 한다.

天·地·人 三界 宇宙 전체를 일관하는 理法인 道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것은 二律背反과 같은 敵對的 原理가 지배하는가, 二律待對의 陰陽 調和의 原理가 지배하는가를 巨視世界와 微視世界의 사실을 가지고 論証하기로 한다.

그 證明은 '易'字가 말하여 주듯, 宇宙內 모든 天體들은 끝없이 운동과 변화(易: 바꿀역)하여 운동법칙이 있는가 없는가 알 길이 없으나 쉬웁게(易: 쉬울 이) 「있다」고 確答을 내릴 수 있는 것은 人間이 알고 있는 몇 千萬億 兆라는 數의 개념으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天體들이 각자 자기 軌道를 추호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며 天體 충돌이라는 宇宙大亂이 없다는 사실은 宇宙에 大秩序가 있다는 증거이다. 人間社會는 交通法規가 철저히 준수하도록 強權이 발동되고 있어도 각종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대형 사고들이 충격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人間社會의 法과 大自然의 法則은 그 嚴正하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大自然이 絕對的이다.

또 한 충돌하지 않고 千秋萬古이래 宇宙의 平和를 지속한다는 사실은 天體間에 排他的 原理가 지배하지 않고 待對의 原理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과 무엇이 서로 의지하고 기다리는 待對의 相對가 되는가?

天體(별들)의 軌道는 直線이 아니라 圓인 만큼, 圓에는 中心点이 있기 마련이고 中心点的 天體와 軌道를 운행하는 天體는 磁氣의 磁場처럼 遠心作用과 求心作用이라는 引力으로 一定 거리를 유지하면서 軌道를 自轉 公轉의 운동으로 精密하게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中心点的 天體 이룰테면 太陽은 陽天體가 되고 軌道를 운행하는 惑星 이룰테면 地球는 陰天體가 된다.

이와 같이 巨視世界の 天體의 運動 변화도 陰陽合德 陰陽調和의 原理로 이루어지며 排他가 아닌 相生 調和로 宇宙的 平和가 실현되고 있다.

微視世界를 알아보면 물질로서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最小 微粒子인 原子가 하나 있다고 치자.

이론상으로 따지면 分割 不可의 最小 單位物質이기에 單一 微粒子인 原子는 單獨 存在같으나 原子도 「內外」라는 物質存在方式으로 構成되어 있어서, 宇宙 天體 運行과 같이 中心 天體에 해당하는 자리에 「陽性子」가 있고, 惑星이 運行하는 軌道의 자리에 陰性子에 해당하는 「電子」가 陽性子를 中心으로 電子軌道를 運行하여 축소된 小宇宙 뒤를 嚴正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微視世界인 小宇宙와 巨視世界인 大宇宙도 한결같이 陰陽 調和合德의 原理로 構成되고 運行되며 生成하고 있음이, 첨단과학과 우주과학 天文學으로 立証되고 있음을 볼 때 易哲學의 교훈과 陰陽合德의 宗旨는 不變의 眞理로서 거듭 確認된다.

現代文明의 原動力이라 할 電氣工業의 偉力도 陰陽合德의 物理的 응용에 지나지 않는다. 陰電과 陽電이 결합함으로써 어둠이 밝아지고 百·千·萬 馬力 그 이상의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각종 物質文化의 生産力을 增進하며 酷寒을 따뜻하게, 暴暑를 서늘하게, 地上을 天國 부럽지 않게 만드는 역할 모두가 電氣의 陰電 陽電의 結合 즉 陰陽合德의 결과이다.

그러나, 陰陽으로 구성된 微粒子 原子가 눈으로 볼 수 없는 微細 單位 物質이지만 만일 그 陰陽 構造를 逆用하고자 不正陰 不正陽 자리 바꿈을 하면 原子 内部에서 亂立 亂鬪하다 파괴하여 무서운 破壞熱을 폭발하니 그것이 原子爆彈의 원리라고 한다.

自然科學의 발달로 수 많은 利로운 道具가 나날이 생산되고 있으나 害로운 凶器가 또 무수히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 人類를 파멸시킬 가능성이 높아 가고 있으니 陰陽 逆用하는 人類가 공포스럽다.

大宇宙 自然은 創始이래 億兆年을 고요히 太平을 누려왔는데 地球村의 人類 歷史 몇 千年도 안 되었는데 大發展이라고 할 수 없는 現存 文明 정도로 自滅할 凶計를 모색하는 人間들 大改革하지 않을 수 없다.

危機의 歷史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人間들의 意識構造부터 고치는 일이다.

즉 共同體의 존재로서 相和意識이 本能化되어야 하겠다. 表意文字로 東洋 共用文字인 漢字로 「사람」을 「人間」이라 概念化된 뜻은 여러 사람들 속에서 태어나 共生하다 共同體와 운명을 같이 할 존재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인」, 「사이 간」을 결합하여 「人間」이라 하였다.

共生하는 共同體인 개개인들이 生存을 위해서 상호 투쟁을 일삼는다면 살자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결과를 초래한다. 「투쟁」이라는 언어 자체가 「죽음」에 이르는 方法論이다. 「죽음」이라는 언어가 最後에 사용하는 말이라면 「투쟁」은 그 말 다음 마지막 말이라 하겠다.

言語生活도 되도록 極限적이고 殘忍한 말은 삼가고 溫和하고 厚德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平和롭고 행복한 生活을 하게하는 言約이 될 것이다.

현대는 民主時代라 해서 民主先驅者然 하는 사람들은 「투쟁이 없는 곳에 民主發展은 없다」고 하며 투쟁만큼 民主主義를 쟁취하는 것이라 力說하고 있다.

大學교수로서 한 때 年中 無休 學園民主化 투쟁하는 학생들을 설득하고 學業에 복귀시킬 때 겪었던 苦役은 잊을 수 없다.

올바른 民主化는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和合하는 데서 결실을 거두는 것이다.

西洋의 辨証法 의식구조를 갖는 限 二律背反을 原則으로 信奉 社會構造를 分열 투쟁 결합을 불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東洋의 陰陽 二律待待 原則과는 相反하는 바 東·西 의식구조 어느 편이 正當한가?

21世紀 世界化時代를 맞이해서 意識부터 開放하여 世界化해야 하겠다.

對立意識에서 和合意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間 막혔던 東西의 벽이 허무러져 統一意識이 성숙해야 한다.

東洋 西洋을 陰陽으로 인식하면 서로 同伴者 伴侶로써 불가분의 二洋 一洋世界一家가 된다.

陰陽合德은 地球村 人類歷史의 統一期를 맞이하여 統一原理가 되며 人類를 和合할 新哲學의 指針이다.

筆者는 本 論叢 第二輯 陰陽合德 特輯號에서 「理想的 人間性 形成 위한

陰陽合德論」을 執筆 새로운 歷史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主役인 人間 個個人들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판단, 人間性(人性) 개혁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本論에서 先天的 人性 形成論과 後天的 人性 形成論을 구별하여 一章 先天人性에서는 古典的 先天 人性觀, 遺傳的 人性觀, 正陰 正陽의 夫婦生活論을 다뤘고 二章에서는 後天人性을 性自由論的 人性觀, 父性愛 母性愛의 調和로써 理想的 新人間性的 창조가 가능함을 論하였다.

그 要旨은 古典的 先天 人性觀에서 代表的 性善說, 性惡說, 性無善無惡說, 性有善有惡說등 決定的 人性觀을 보았다.

遺傳的 人性觀은 血統이라는 肉體的 유전조건과 동등하게 精神的 유전조건도 決定的 精神遺産이라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범한 말로 표현하면 얼굴과 몸 전체가 父母와 그 血統을 따르듯 마음가짐도 父母의 그 遺傳을 물려받는다는 말이다.

健康하고 美麗한 肉體로 태어난다는 것, 父母로부터 좋은 肉體遺産을 물려받듯, 참되고 착하며 아름다운 마음씨를 물려받는다는 것도 값지고 高級스런 精神遺産을 상속받는 것이다.

못된 疾病의 因子를 유전한다는 것이 不幸한 유전이라면 惡한 精神因子를 유전하는 父母는 惡한 父母일 수밖에 없다. 肉體의 疾病을 유전하는 것은 모든 父母들이 원하는 바 아니고 本意 아닌 불가피한 유전이라 치더라도 惡한 마음을 유전하는 것은 父母의 改心으로 防止할 수 있음을 道德學을 통하여 배워 실천하려는 努力으로 善心 精神遺傳하는 父母가 되어야 하겠다.

惡한 精神遺傳因子를 상속받고 태어난 사람은 그 만큼 善한 사람 되기에 不利한 條件의 所有者요, 善한 精神遺傳因子를 상속받고 태어난 사람은 그 만큼 善한 사람되기에 有利한 條件의 所有者가 된다는 遺傳科學的 眞理를 天下의 全父母들은 銘心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善한 精神遺傳因子를 상속한다는 것은 不正한 方法으로 數千億金의 無常한 物質財産을 상속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偉大한 人間됨의 遺産을 물려주는 것으로, 父母로서 子女 出生 前에 할 수 있는 子女 참 사랑의 길이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可能한가?

곧 올바른 夫婦生活인 正陰 正陽의 調和 合德으로 이루어 지리라 確信한다고 하였다.

3. 後天 人性 改造論

人性에 관한 古典 學說이나 현대 遺傳科學의 立場에서도 決定論的 人性論은 公同되었었다. 그러나 筆者의 견해는 人間이 萬物의 靈長이라면 性自由 存在에 있다고 주장한다.

소에게는 牛性이 있고 말에게는 馬性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서는 人性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牛性이나 馬性은 固定되었으나 人性은 生來의 品性を 後天的으로 改造하여 生涯를 向上도 下落도 선택할 수 있는 存在임이 특색이라 보고 있다. 그래서 人性에 관한 한 性自由論을 내세우고 있다.

왜 人性은 自由인가?

人性은 普遍性和 個別性의 兩性이 있는바, 生命體로서의 本能과 그 이상 욕구 그리고 思惟 일체를 개괄해서 통칭할 때 보편적 人間性이라 하겠고,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사람마다 특유한 個別的 品性を 個性이라 하겠다.

보편적 人間性을 보더라도 他動物의 種의 本能처럼 획일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왕성한 욕구, 풍부한 사유작용과 多感 多情한 感情, 강인한 意志의 소유자요, 그것은 결코 언어로 규정할 수 없을만큼 무한하다는 점에서 自由인 것이다. 개별적으로 말하면 基礎本能 이외에 욕구, 사상, 감정, 지능, 의지 모두가 同一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個性의 自由는 罔연한 사실이다.

왜 人間은 他動物들처럼 種의 本能이 획일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人間性이 풍부하며 사람마다 個性에 千差萬別의 高低의 정도가 무한한가?

그것은 人間の 腦細胞조직이 타동물들보다 精密하여 욕구 사상 감정 지능 의지작용이 왕성한 것이며, 개인의 차이 또한 뇌세포조직이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어 인간의 數만큼 계급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人性의 自由는 生物學的 自由를 말하며, 생물학적 자유는 腦細胞 조직과 기능의 差異를 말한다.

人間은 이처럼 타동물에 비하여 뇌기능이 정밀하고 발달되어 生命體 共有

의 기초본능 욕구 충족 以上 능력에 따라 知的 情的 意的 활동이 무한이 전개됨을 일괄해서 「欲求의 자유」라 칭하기로 한다.

타동물이 아무리 長久한 세월이 경과하여도 그들의 生態界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일정한 本能 충족으로 만족하는 同一 軌道の 반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人間은 本能 이상 限없이 추구하려는 欲求의 자유 때문에 지능이 발달하고 발달한 지능을 활용하여 개발한 결과를 文化라 하며 그 과정의 時間을 歷史라 한다. 이 때문에 人間은 歷史的 動物이요 文化的 動物이라 자처할 증거가 있다. 따라서 人間 특유의 업적인 文化를 창조할 수 있는 能力은 欲求의 자유인 것이므로 人間은 「自由의 動物」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人間이 生物學的으로 구별되는 屬性을 '自由'라 하는 것이요 人間에게서 自由를 제거한다면 그 本質의 상실로 人間圈에서 탈락한 動物이 되고 만다.

실제 있어서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는 '個性'도 각자의 自由의 양상의 다름을 말하는 것이므로 全人類로부터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 自由의 存在이며, 그 自由의 能力의 표현이 人類의 文化요 각자 文化의 創造活動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自由는 歷史와 文化를 창조하는 특유의 '能力'이라는 점에서 人間된 '偉力'이라 할 수 있고 人間을 '偉大한' 存在, 萬物의 靈長이라 자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즉 '偉大한'이라는 形容詞는 價値修飾詞이므로 人間의 自由라는 능력이 무엇을 창조해야 價値를 인정받을 수식사로 形容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제 自由의 正體를 알아야 할 단계에 왔다.

自由가 전폭적으로 讚辭를 받아 마땅하다면 全人類는 天使와 같이 善良할 것이고, 人類의 歷史는 天國으로 직결된 과정을 걸어 왔어야 했는데 과연 그렇다고 볼 수 있는가?

人類를 天使로 보기에 는 너무나 큰 罪惡을 犯하여 우리를 실망시키고, 人類의 歷史는 공공연히 투쟁의 과정이라 할 만큼 파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오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도 人間의 自由는 첫째 구조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둘째 이러한 自由를 속성으로 하는 人間存在는 生物學的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확인해야 하겠으며, 셋째 動物科에 속해 있는 人間이 自由를 어떻게 해야 만물의 靈長으로 最貴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價値觀의 문제를 성찰해야 한다.

1) 自由의 構造

이미 筆者의 自由論은 生物學的 自由라 한 바 人生은 高級 生命體이기 때문에 基礎生物 本能에 충족치 않고 高度의 知能을 발휘하여 만족을 증진하여 가는바, 그것이 自由요, 그 自由가 本人 一身만 충족하고 他人에게 有害한가 有益한가로써 有益한 自由를 上向自由 즉 ‘+自由’가 되고 有害한 自由는 下向自由 즉 ‘-自由’라 한다.

+自由와 -自由의 境界선은 0線으로 +自由 -自由도 아닌 動物 公同적 本能 충족에 만족하는 本能必然線이다.

人生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人類가 同等하게 尊嚴한 存在라 보지 않는 것이 筆者의 人生觀이다.

人生으로서 上向自由 ‘+自由’만을 嚴選하여 충족시켜야 尊嚴한 人間이라 인정한다.

+自由는 보탬이 되는 自由, 增加의 自由, 肯定的 自由, 積極的 自由, 發展的 自由, 建設的 自由, 創造의 自由를 의미한다.

-自由는 적어지는 自由, 減少의 自由, 否定的 自由, 消極的 自由, 退步의 自由, 타락의 自由, 파괴의 自由가 이에 속한다.

0線은 ‘+-=0’의 原理에 따라 ‘零’이므로 ‘零’은 Zero 즉 ‘無’를 뜻하고 곧 ‘無自由’가 되어 이것이 自然 必然의 法則에 지배됨을 말한다.

自由人이란 바로 自然 必然法則 本能에 지배받으면서 자연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精神的 物質的 욕구를 고도로 발달한 지능과 사유작용으로 끝없이 충족시켜 갈 수 있는 위대한 創造의 自由가 있는 반면, 自然의 섭리로도 상상 못할 무서운 파괴와 추악(醜惡)한 自由의 능력까지 보유한 것이 人生이다.

따라서 人生을 讚美할 수 있는 것도 實은 十自由의 영역만을 이룸이요 人生을 醜惡하고 惡毒하다고 저주할 수 있는 근거도 一自由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어느 한편만 가지고 人類 전체를 찬미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편견이요 人生에 대한 연구 부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2) 人生의 等分

人生이 모두 天使 神仙과 같다거나 猛獸와 같이 잔인하다면 天國과 弱肉 強食場에서 살 것을 知能이 크게 발달한 高等動物科에 속한 存在類이기에 문제가 있다.

人生이 존재하는 數만큼 각자 구조가 다른 細胞의 결합 때문에 同一한 人生은 한 사람이 없다는 科學的 사실로 해서 不平等 人生觀이 도출되었다.

肉體의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 醜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人間性이 善良한 사람 惡한 사람이 있는 것도 腦細胞 구조 때문이다.

또한 외모의 결점을 內性の 陶冶로 外醜 內善한 사람이 있고 外美 內醜한 사람도 있어 천태 만상한 것이 人間社會相이다.

性自由論에서 自由의 構造分析으로 확인한바와 같이 生物學的으로 人生은 階級的 存在로 태어났고 道德的 自覺으로 改善의 노력에 따라 人生 等級이 확대되어 간다.

그래서 十自由人의 世界도 高·下 계급이 무수하나 初級에 入門한 사람부터 「人間資格 取得者」라 하고, 一自由人들은 「人間 以下の 惡漢」이라 命名해야 할 것이다. 人間됨의 資格을 失格하였으므로 人間으로 부를 수 없고 動物만도 못되어 「人間 以下の 惡漢」이라 하였다.

0線에 속하는 사람들은 上向도 下向도 없이 自己 一身만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남에게 有益도 有害도 없이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 땅을 뛰어가는 動物처럼 無益無害한 人生들이다. 人間共同體의 一員의 資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人間」 資格을 취득하나 一身 獨生子 利己主義者 「人間」이라 호칭할 수 없고 無意概念 「사람」 또는 「人生」이라 하겠으며 실질적으로 共同體的 存在를 상징하기 위해서 「사람 인」字를 「人」字로 造字한 原意로 보아 「人」字에 해당되지 않는 存在는 他動物과 同格되므로 動物的 人生이라 취급

해야 할 것이다.

3) 價値觀의 派生

高等生命體 人生이 善·惡을 分別하고 善을 택하는 것은 十自由人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나도 좋고 당신도 有益한 일에 한해서 行할 때 善이라 하고 최소한 나에게 有益하고 남에게 無害한 일은 無善하나 反道德的 行爲는 아니므로 무방하다. 그러한 사람은 無善 無害界人이나 無害가 관습될 때 有益한 일을 당면하면 善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知能은 뛰어나지만 自身만의 利益 打算에 날카롭고 他人에게 有益한 일은 인식한 사람이 많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優秀한 腦機能이 利己的으로 作用하는 部類는 利己主義者들이고 反社會的 人生들은 0線界의 無善 無惡者의 수준 以下の 一自由界의 惡漢들이요 그들의 所行은 惡이다. 惡의 근원은 利己心이고 확대 성장하면 無善 온갖 惡을 자행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利己心을 根絶하는 習性을 길러 주어야 下向의 自由人으로 하여금 上向으로 逆行하여 惡人을 善人으로 改造하게 된다.

人生은 各者 「내가 存在한다」는 것은 ‘我’가 ‘非我’의 세계에 對立되었다는 것으로, 크게 보아 主體인 ‘나’를 陽이라 한다면 對象 一체를 陰이라 할 수 있고, 我와 非我的 對立을 相剋 투쟁의 대상으로 보느냐 相生 待對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善과 惡으로 分割된다.

我와 非我, 陰과 陽이 調和할 때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世界가 和愛 넘치는 樂園이 되고, 相剋 투쟁을 일삼으면 人類의 歷史는 亂鬪史요 그 앞날은 悲劇의 終末이 기다리는바, 그 선택의 自由는 우리 人生의 攄이라는 人性觀이자 人生觀이 性自由論이다.

人間世界를 樂園으로 만들 것인가 地獄이 무색하게 할 것인가는 人類가 모두 善人이 될 것인가 惡漢이 될 것인가에 있다.

善人과 惡漢의 갈림길은 我와 非我로 구성된 人間社會를 陰陽場으로 볼 때 ‘나 陽’과 ‘社會 陰’이 相生 相和하면 善人이요 不和 투쟁하면 惡漢이 되고, 善人社會가 樂園, 惡漢 亂鬪場은 自滅이 온다.

이 땅 이 地上을 樂園 仙境으로 만들 것인가 地獄이 무색하게 할 것인가

는 天主의 뜻도 地靈에 책임이 있지 않고 選擇의 自由權을 장악한 人間 個人들에게 있다.

人性自由論은 그것을 明示하고 일찍이 甌山께서 『天尊과 地尊보다 人尊이 크니 이제는 人尊時代라』(교운 2장 58절 전경 244面) 言明은 人類에게 주어진 自主權을 환기 自覺시킴이다.

이것이 後天 人性改造論의 要旨이며 後天時代의 人間이 되기 위해서 下向 自由人이 下落하지 말고 上向 自由人으로 改善할 것을 강조함이다.

4. 後天文化時代를 위한 陰陽文字 調和論

1) 한글 專用의 非理를 규탄함

歷史를 만드는 主役은 人間이고 만드는데 쓰는 道具 가운데 가장 큰 몫을 하는 것은 文字라 하겠다. 文字 없는 人類는 原始人이나 未開人이라 할 것이며 文化없이 살아가는 人生, 動物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 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만들자면 道具가 좋아야 능력을 올릴 수 있고 더욱 발전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다는데 道具의 役割이 至大하다 하겠다.

作業에 있어서 道具의 性能이 能率을 倍加할 수도 半減할 수도 있다는데서 優秀한 道具를 선택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현명하다 하겠다.

21世紀는 人類歷史가 새 次元으로 도약하는 新契機라는데 큰 뜻이 있어서 世界化時代, 地球가 한 村落 한 마을로 가까워지고 親近해진 時代라 해서 地球村時代라는 말은 이미 귀에 익숙하여 졌다.

그렇다면 東洋文化 西洋文化도 兩立되어 오던 時代가 청산되어 統一文化期에 진입했다고 하겠다. 地球村 統一文化를 위해서 文化創造의 큰 道具인 文字 또한 統一役割을 해야 할 것이다.

東西文字의 統一役割이라 함은 東西文字 中 어느 한 쪽 文字만 쓰자는 흡수식 統一論은 참된 統一이 아니라 침략식 統一役割이므로 배제해야 한다.

이 말은 東西洋 가운데 代表的 어느 先進國 文字 하나로 世界文字化 한다는 것이 아니라 文字論的으로 東西文化를 말할 때 東洋은 表意文字 文化圈(뜻 글 문화권) 西洋은 表音文字 文化圈(소리글 문화권)이라 일러오고 있기

때문에 西洋의 알파벳 文字로 統一 사용할 것인가 東洋의 대표적 表意文字인 漢字로 統一 사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表意文字의 長點과 表音文字의 長點을 살려 兩用해야 올바른 世界化時代의 統一文化를 위해서 統一文字의 役割이 된다는 말이다.

表意·表音文字의 兩用的 統一은 어떻게 가능한가?

西洋의 경우는 不可能하다. 수 천년대 表音文字 하나만 사용하여 文化를 발전하여 온 西洋의 모든 나라들은 表意文字의 長點을 活用하고자 해도 言語彙 記錄된 文書遺産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매사에 있어서 하나만 사용하여 온 사람에게는 좋거나 나쁜 것도 선택의 여지 없이 單用的 길밖에 없다. 비교해서 선택하므로써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지를 못하는데 單用者의 缺點이 있다.

東洋 여러 나라 중에서 이 缺點을 피치 못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中國인바 中國은 漢字라는 表意文字만을 사용하므로써 言語生活의 다양한 音樣을 표현할 수도 기록할 수도 없고 意思 전달로 만족한다.

우리 韓國의 경우 朝鮮朝 초기까지 語文生活에서 이 결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表意 漢字를 單用하여 왔다.

그러나 世宗大王의 한글 창제로 表音文字가 이 땅에 정착하여 表意 表音 兩用的 계기를 마련하였다.

世宗大王의 한글 창제한 높은 뜻은 漢字를 모르는 서민 대중만을 글 눈(文眼)뜨고 뜻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高次的인 文字哲學 즉 表意 表音文字의 兩用에서 새로운 文化를 창조하는 道具의 機能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함이었다.

그 당시는 上流層이 漢文을 眞書라 하여 漢文만 쓰고 庶民들은 한글을 그들을 위해서 만든 글이라 하여 專用하였었다. 한글을 諺文이라 稱하는 것도 「諺」字가 「속될 언」, 「상스런 언」, 「거칠 언」, 「억셀 언」이고 볼 때 諺文으로써의 한글은 俗人 庶民 下流層을 위한 글로 출발하였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現今에 와서는 逆으로 한글은 우리 民族이 개발한 「우리 글」이요 한글 제정 이전에 전용했던 漢文은 外來 借用文字이므로 하루 빨리 한글 專用해야 民族自主文化가 창달한다고 한다.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요 認識 不足에서 오는 發想의 所致이다. 이런 發想은 愛國과 事大主義로까지 확대되어 한글 專用主義者들은 愛國者, 國漢併用論者들은 事大主義者로 취급하고 있다.

한글 專用이 옳다고 주장하는 側의 큰 잘못은 첫째 道具觀이요 둘째 國字論이며 셋째 自由民主精神이다.

첫째 道具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主와 從, 目的과 手段 兩者가 있을 때, 主와 目的은 不變이요 從과 手段은 主와 目的을 위해서 언제라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可變的이다.

이제 한글의 경우도 民族文化를 전달하고 수용 개발하는데 매우 적합한 道具이나 한글 제정하기 以前 유구한 歷史遺産은 한글만으로 전달할 수도 수용할 수 없었다.

한 民族의 言語는 그 民族의 文化의 容器라고도 할 만큼 語彙은 文化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語彙은 많을수록 先進 文化民族이라 할 수 있고 적을수록 後進 未開民族이라 할 수 있으며 一個人도 높은 文化人일수록 語彙가 풍부하다고 하겠다.

韓民族은 國語學者에 의하면 韓國語 語彙의 68%가 漢字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즉 이 사실로 볼 때 漢字가 도입된지 二千年에서 二千五百年 사이라 하는데 가정해서 韓國語를 十萬 어휘라 하면 漢字 도입 以前은 三萬二千 어휘밖에 되지 않던 것이 漢字가 도입되면서 급진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만큼 文化 水準이 높아졌다고 하겠다.

지금 이 글을 쓰는데 기록하는 어휘 가운데 漢字語가 三分의 二가 되겠고 또 새로운 學術語를 造語하다 보면 三分의 二를 상회하여 갈 것이다.

漢字語인 「國語」, 「愛國者」 따위의 어휘는 中國民族 文字를 빌려 造語하였다고 해서 우리 나라 말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말고 추방해야 옳은가?

漢字語 70%가까운 어휘를 갑자기 사용하지 않는다면 二千年前 古代時代로 소급하는 것과 같은 불편을 견딜 수가 없어 窮餘之策으로 말은 漢字語를 모두 사용하고 記錄만은 한글로 쓰라 하는 式의 한글 專用이다.

마치 生産 못 하는 本妻가 媿家の 血統을 계승하고자 外部女人을 맞아 子女를 出産한 后 産母를 추방하는 格의 한글 專用 政策이다.

漢字 語彙를 한글로 기록하면 한글 專用이 完成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前 例話, 生産 못하는 本妻가 子女를 他女人에게서 出産 后 추방하면 本妻가 生母가 된다고 주장함이나 무엇이 다른가?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國語」도 「愛國者」도 「韓國」도 「韓國語」도 우리 나라 말이다.

참 愛國者가 되자면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하고 「愛國者」라 하면 안된다는 말처럼 큰 모순은 없다. 그러한 모순을 犯하는 사람들이 한글 專用主義者들이다.

「한글」이라고 하는 文化創造의 道具는 필요해서 世宗大王이라 하는 聖君이 창제하였으니 고마운 道具 적절하게 사용하며, 그 이상 좋은 道具는 그 자리에 善用할 것이다.

道具는 文化創造라는 目的을 위해서 다양하게 개발할 것이며 創造作業上 적합한가 수시로 선택해서 效果를 높힐 運命이다.

한 사람이 하는 作業에 目的은 하나이나 道具 手段은 많을수록 좋고, 效率를 높이기 위해서 선택을 잘 하는 사람이 賢明한 사람이다. 道具 手段을 唯一하게 사용하면 主格과 從格을 모르거나 主·從을 顛例한 사람이다.

둘째 한글은 우리 글이요 漢字는 남의 나라 文字라고 생각하는 偏見을 是正하고자 한다.

우리가 漢字라는 中國文字를 도입하여 善用하고 있으면 우리 文字인 것이요 中國文字가 아니다.

마치 美國에서 購入한 飛行機 우리가 잘 쓰고 있으면 우리 비행기인 것이요 매매전 美國에 있던 비행기가 아니다. 어찌 國際化時代에서 製造國을 고집하여 무역 交流하는 商品을 끝내 生産元이 主人이라 한다면 鎖國者로 孤立 無援 도태되고 말 것이다.

亞細亞 漢字文化圈諸國들은 결코 漢字은 中國文字로 생각하지 않으며 共用文字로 인식이 굳어졌다.

이것은 美製品이 수출되면 수입국이 所有主가 되듯 中國文字가 아닌 韓國 日本 文字여서 도입국이 共用主가 된다.

漢字도 中國이 수출치 않고 韓國 日本이 수입치 않는 中國語 漢字는 例를 들어 「花子」 「東西」등이 있다. 「花子」는 꽃같이 아름다운 女人이 「花子」가

아니라 「乞人」 「거지」여서 韓國이나 日本 等地는 기대 이하의 어휘라 하여 안 쓰고, 「東西」는 「물건」 「物品」여서 상상외의 字意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中國만의 漢字 漢字語가 있고 導入國 共用主 漢字가 있음을 明示하며 「漢字는 끝내 中國文字요 우리 나라 文字가 아니다」라는 誤認을 解明하고 「漢字는 한글과 함께 國字다」로 國字論을 매듭짓는다.

셋째 한글 專用은 自由民主主義의 精神에 逆行함을 지적한다.

「한글 專用」이라 함은 「한글만 오로지 사용할 것이요 이외의 文字 사용을 禁한다」의 뜻이다.

漢字는 二千數百年前에 이 땅에 도입되면서 급속한 民族文化 발전에 기여하였을 語彙가 證明하는데 왜 적대시하고 추방하려 하는가?

恩人에게는 報答報恩하고 敵은 퇴격하는 것이 原則이다. 原則을 뒤엎고 恩人을 몰아낸다면 背恩忘德者가 된다. 만일 漢字 도입 없이 半萬年이 경과했었다면 얼마나 未開民族으로 落後되었었던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忘覺하고 한글만 單用하라는 사람은 民主國家의 國民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크게 의심스럽다.

더구나 自由民主主義를 선양하면서 어떻게 民族文化 발전에 至大한 역할을 하는 文字의 自由로운 사용을 억제하는가?

民主 憲法의 精神에는 國民 모두 사상 감정 表現의 自由가 있는데 文字 사용의 自由를 박탈하는 한글 專用을 강요하는가?

專用이라 함은 선택의 自由없이 지정된 것 하나만 사용하라는 專制요 獨裁다.

專制 獨裁는 民主世界에 없어져야 한다. 있다면 民主主義를 위장한 反民主主義다. 獨裁 專用의 強權은 軍人들에게 可能하다. 그 實話를 기록한다.

1962年 2月 中旬 한글 專用主義者들이 朴正熙 革命政府와 結탁하여 이 기회에 한글 專用을 強行하라 하니 革命政府 快히 수락, 앞으로 國內 모든 刊行物는 一切 한글 專用할 것이 決定되었다고 크게 보도되었다.

山村에서나마 이 忿怒 참을 길이 없어 筆者는 要旨 다음과 같은 글을 가지고 직접 上京하여 國家再建最高會議 議長 장충동 관저로 찾아갔다.

물론 村夫의 身分이니(당시 筆者는 忠南 靑陽에서 農業에 從事함) 門前에

서 憲兵의 沮止로 議長面會가 거절되었지만 “꼭 이 글만은 議長님(朴正熙)께 전하여 달라”는 호소를 남기고 돌아왔다.

『…議長님 여기 ‘滅共統一’이라 表記한 것과 ‘멸공통일’이라 쓴 것을 비교할 때 그 읽는 速度나 意味 전달에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그것이 주는 感度는 어떻다 보십니까?

구태여 쓰기(書) 까다로운 획수 많은 漢字로 기록하는 것은 그 文字에의 愛着이나 習慣에서가 아니라 쓰는 者의 意中世界를 讀者로 하여금 切實하게 共鳴을 요청하는 때문에 뜻을 그린 뜻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뜻을 強力히 호소하려 할 때 소리만 기록하는 소리글자와 뜻을 숨췌한 뜻 글자의 표현은 위 한 예로도 足히 首肯하시리라 믿습니다.

“멸공통일”은 既存知識 既成觀念 그 以上の 반응을 주지 못하지만 ‘滅共統一’은 그것을 쏘아보면 볼수록 차츰 차츰 깊어가는 決意로 어금니로 우직끈 갈아 마실 새 覺悟 같은 느낌이 움터오르지 않습니까?

.....

半萬年 歷史 속에서 文化民族으로 길러 준 文字에 대한 報答이 一朝一夕에 추방으로 돌변한다면 마치 暴君을 몰아낼 때는 忠臣이 되지만 聖君을 몰아냈을 때는 그 反對가 될 것이니 漢字 追放이 과연 革命의 대상이 될 것인지 깊은 配慮를 仰望합니다.』

이 글을 當時 朴議長이 一讀이라도 하였는지 모르지만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다음과 같은 回信이 왔다.

『귀하의 고견을 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국정 에 많은 参작을 할 것이니 변함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비서실장 윤필용』

筆者의 이 建議書가 효력이 있어 한글 專用의 결정이 중지되었는지 모르 겠으나 한글 專用은 再論되지 않았다.

2) 陰陽文字의 調和論

하나의 地球도 南極(S)이 있고 北極(N)이 있으며 東洋이 있고 西洋이 있으니 陰陽論의관점으로 조명하면 東洋은 陰洋 西洋은 陽洋이라 하겠다.

本項은 陰陽文字論이므로 東西洋의 文字가 어느 편이 陰이고 어느 편이 陽인가 또 그 機能이 어떻게 다른가 살피기로 한다.

東洋의 대표 文字인 漢字는 內部 內容 속의 뜻을 나타내며 西洋의 대표

文字인 앨퍼벳은音を 나오는 대로 기록하는 역할의 文字이다. 이것으로 보아 漢字는 陰性文字이고 앨퍼벳은 陽性文字라 하겠다. 또한 陰性文字는 有意文字이고 陽性文字는 無意文字이다.

表意 陰性文字는 一字 一意 혹은 多意이고 表音 陽性文字는 一字 無意 多字 連結로 有意된다.

表意文字는 一字 一意 혹은 多意이기 때문에 二字 이상 결합하므로써 新語彙를 造語하기 쉽다. 그래서 漢字 導入이래 二千餘年間 그 以前の 몇갑절 긴 歷史로 造成된 言語의 3배 이상이라는 사실로도 그 造語力이 뛰어난을 확인한다.

一字마다 뜻이 있기 때문에 視覺的으로 直覺된다.

文字는 文化遺産을 傳承하고 個人마다 思想 感情 意思의 표현 전달하는 媒介手段인바 우리의 文字 한글은 無意 表音文字로 他字가 따라오지 못 할 表現力이 있다. 한 예를 들어 본다.

『불그레하게 피어오른 두 볼에 엷은 보조개가 바람처럼 스치고 갔다』든가, 『아들아들한 그 입술』 『포동포동한 젓가슴』 『토실토실한 종아리』등의 表現과 表記는 韓國的 情趣요 한글만의 能力이 아닐까 한다.

數千年의 歷史를 두고 발달하여 온 漢字라 하더라도 한글만의 機能은 따를 수 없고 한글로만 못다 할 뜻의 奧妙한 표현을 漢字가 할 수 있는 것이다. 全 漢字體 文章이 주는 重壓感, 純 한글 文章이 주는 皮相性 倦怠感, 이것들이 混成되어 調和를 이룰 때 表意 表音文字의 相乘的 效果를 가져올 것이니 이 自由로운 語文生活, 즉 豊富한 표현으로써 幅넓고 多樣한 民族文化를 개척하여 가자는 것이다.

表意文字와 表音文字를 서로 排他的 관계로 보지말고 相補의 關係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陰性文字 陽性文字로 파악 陰陽 相合의 效能을 발휘해야 한다.

한글 專用論者들은 이 原理로 볼 때 陽性인 表音文字 單用을 주장하니 人生으로 따지면 男子 獨身生活을 고집함이다. 男性 獨身, 女性 獨身生活함은 宇宙의 生成法則을 위배함이니 그 一身 單代로 生命의 흐름이 끝나고 만다. 生存하는 과정도 陰陽 和愛없이 半樂으로 만족해야 한다.

文字生活도 表意文字 單用, 表音文字 單用이 곧 獨身生活하는 男子와 女子의 孤獨과 같은 生의 構造的 缺乏에서 오는 缺如症 아쉬움을 피할 수 없다.

한글 專用主義者들의 統一된 辯은 쓰기(書) 쓰기(用) 쉽고 간편한 한글 專用에 추호도 불편이 없다고 하나 그러한 辯은 獨身하는 男女 모두 習慣되어 불편이 없어졌다고 함과 다를 바가 없다.

嚴然히 男子가 할 수 있는 役割과 女子가 할 수 있는 役割이 있어 둘이 각자 半分役割을 하여 萬全을 期하는 것을, 혼자 두 몫을 다(實은 不可能함) 하거나 相對가 할 일을 못하여 남겨 놓고 아쉬운 만족으로 自足하는 것이 獨身者의 辯이요 한글 專用者들의 辯이다.

20世紀까지는 世界가 未開放時代라 하였으나 21世紀는 完全 開放時代, 名實相符한 世界化時代가 실현하기 위해서 東洋과 西洋이 陰洋 陽洋이 되어 相合해야 하겠다.

21世紀는 地球村 全人類가 大同和合하기 위해서 東西 人類의 大統一해야 하겠다. 이런 때를 甌山께서는 後天世界가 열린다고 하였다.

올바른 世界化가 되기 위해서는 東·西洋이 同等한 人權으로 相扶相助해야 하겠으니 東西文化를 優劣意識으로 평가하지 말고 陰陽文化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東西文字도 陰陽道具인 것이며 陰的 道具와 陽的 道具에 優劣이 있을 수 없어야 하겠다.

進歩派라고 自認하는 東洋 知性人들중에는 조속히 先進文化人이 되기 위해서는 西洋文化를 따라야 한다 하고, 고루한 東洋的 意識構造를 청산해야 한다고 한다.

이야말로 從屬根性이 뿌리내린 從屬主義者요 新版 慕西事大主義者가 아닐 수 없다.

西洋이 歷史이래 先走 文化圈인 것은 至大한 文化道具인 文字를 表音文字로 했기 때문이고 東洋이 後進圈을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은 表意文字 文化圈이기 때문이라 하여 한글 專用을 合理化하고 있다.

이러한 偏見이 바로 文字哲學 없는 慕西事大主義者가 從屬根性이 意識化

되어 내린 판단이다.

東西洋의 文化觀을 陰陽哲學으로 이해할 때 가장 公正하고 未來指向的 判斷이 나올 것이다.

本論文이 單一 文字哲學論文이 아니기에 長說을 줄이고 한가지 實例를 들어 表意 表音文字 混用이 先進的 語文生活임을 證明한다. 音樂에 있어서 樂譜를 보면 高音 低音, 長音 短音, 強音 弱音이 混合되어 아름다운 音의 調和로 音樂藝術이 成立된다.

語文生活도 高音 低音, 長音 短音, 強音 弱音의 發音이 있어 言語를 구사한다. 그 記錄을 目的하는 文字에 있어서 表音文字는 音만 기록하면서 高·低·長·短·強·弱을 表音 못한다.

때문에 몇 글자를 붙혀 보아야 高低 長短 強弱을 發音하게 된다. 붙혀 읽기 전에 表音文字 기록 文을 보면, 音樂 樂譜를 入手하고 폼을 때 音標(音符)없이 五線紙만 있거나 五線 없이 音標가 一線上에 반듯하게 整列되어 있는 것과 같다.

表音文字는 各 一字가 모두 不完全文字로서 二字 以上 모여서 結合하기를 기다리는 「待機表音文字」라 命名해야 옳을 것이다.

한 예를 들면 「도」 한 字만 써 놓으면 「도」는 「도」이나 어떻게 發音할지 모른다. 「도둑」이라고 한 字를 추가 해야 말이 된다. 그래서 모든 東西 表音文字가 不完全表音文字요 待機表音文字의 運命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表意文字의 경우 一字의 경우 一字로 獨立文字의 몫을 하고 있다.

前例의 「도」 發音을 「盜」라 기록하면 「도둑」이라 쓰지 않고서도 「盜賊」 두 글자까지 미리 알게 된다. 「盜」字는 發音을 短音하며 低音이고 弱音을 한다. 「盜」를 처음 배워 알게 될 때 先生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初等學童 시절부터 그렇게 알아 왔다.

「道」라 기록하면 單字로 충분히 獨立文字 몫을 하며 「道路」, 「道學」, 「道德」 등 수많은 관련 語彙까지 미루어 이해할 수 있다.

그 發音도 長音 平音 強音 인 것을 先生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워서 發音하게 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幼年時節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말을 배우면서 기록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文字 한 字마다 高·低·長·短·強·弱이 있어 그것이 모여 文章이 될 때 樂譜와 같은 藝術的 文章이 된다. 더욱 한글과 같은 優秀한 表音文字가 混用될 때 高級 音樂樂譜 交響樂譜와도 같은 藝術的 文章이라 하겠다. 筆者의 文章은 지나치게 漢字가 많다고 비난을 하나 이러한 文字哲學에서 所信이 不變한다. 한글과 漢字를 文章內容으로 보아 強調할 필요가 있을 때 漢字의 힘을 도움 받고자 꼭 쓰고, 配列로 보아 적당한 按排가 필요할 때 混用의 균형을 잡고자 漢字를 의도적으로 사용한다.⁶⁾

西洋 엘퍼벳 文字文化圈이나 東洋 中國같은 나라들은 表音 表意文字 單用할 도리밖에 없다는 것 不幸스러우나 우리 韓國 韓民族은 聖君 世宗大王의 은혜로 如斯한 文字哲學의 理想을 기할 수 있다는 것 感謝하고 陰性文字 漢字와 陽性文字 한글을 陰陽合德으로 兩用할 때 地球村에서 後天 最先進國이 될 것이다.

II. 神人調化論

1. 調化論

大巡眞理會 宗旨 제2條에서는 ‘神人調化’라 하여 그 가능성과 실현을 ‘調化’라고 하는 概念으로 明示하였다.

그러나 ‘調化’라는 어휘는 韓國內에서 발행된 全 國語辭典이나 漢字辭典 또 中國 日本에서 발행된 漢字辭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新語彙이자, 大巡思想에서 그 독특한 神과 人間사이의 장막을 허물고 相通 相生함을 시사하기 위해서 지어진 新造語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조화’라고 하면 ‘調和’로 써왔고 ‘調’字는 ‘고를 조’ ‘고로 조’ ‘맞을 조’ ‘길들일 조’ 등의 뜻이고 ‘和’字는 ‘온화할 화’ ‘화목할 화’ ‘고를 화’ ‘따뜻할 화’ ‘순할 화’ 등의 뜻이 있어, 두 字가 합해지면 「서로 어울리게 함」, 「고르게 하여 알맞게 맞춤」, 「서로 모순이나 충돌이 없이 잘 어울림」을

6) 國漢 混用文은 바쁠 때 全面 다 읽지 않고 몇군데 훑어 보기만 해도 內容을 이해할 수 있으나 純 한글文은 빼놓지 말고 읽어야 하는 非經濟性이 있다.

뜻하는 어휘로서 英語로는 ‘harmony’가 된다.

그러나 ‘調化’의 경우는 ‘和’字가 아닌 ‘化’가 되어 ‘化’는 ‘될 화’ ‘변화 화’의 뜻이므로 두 字가 합치면 「고르게 됨」 「서로 고르게 변화함」 「서로 어울려 잘 되어감」의 뜻이 된다.

「된다」 「변한다」는 뜻 자체가 「원래의 모습이 바뀌어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므로, ‘調’字가 앞에 있음으로써 單獨 變化가 아닌 다른 相對者와 관계하므로써 兩者가 서로 먼저의 모습이상의 새 모습으로 발전한다는 의미가 된다.

「神人調化」도 神과 人間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對立者가 아니라 相通하므로써 神은 어둠의 세계에서 모습을 나타내지 못 하던 것을 光明의 세계로 出現하여 生前에 못 다 한 소망을 人間을 통해서 실현하고, 人間도 또한 神과 직접 교섭하여 人間으로 할 수 없는 機能을 神의 힘을 도움 받아 成事할 수 있는 相乘效果를 거둘 수 있다는 論理이다.

여기 한글로 ‘조화’라 表記했을 때 당연히 慣用上 쓰여 오던 ‘調和’라 생각하고 現象界에서 ‘이것’과 ‘저것들’이 어울려 和音 和色의 妙를 거두는 것으로 皮相的 이해에 그칠 것을 表意文字로 ‘調化’라 표기하므로써 ‘이승’과 ‘저승’이 開通하여 神과 人이 서로 못다한 恨을 풀고 共榮의 世界를 실현한다는 깊은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物理的 變化와 化學的 變化가 전연 다르듯 ‘調和’는 物理的 變化, ‘調化’는 化學的 變化에 해당한다 비유할 수 있는 것을, 한글로 ‘조화’라고 할 때, 어떤 變化인지 모르도록 表記함이다.

이 한 例로도 韓民族의 語文生活은 한글 專用을 절대로 할 수 없는 證據라 하겠고 이러한 경우가 무수하다.

2. 神人調化의 可能根據

이제 문제의 核心은 神의 세계와 人間界는 이승과 저승으로 幽明을 달리 하는 異域일뿐더러 넘나들 수 없는 것을 어떻게 神과 人이 相乘發展할 수 있는가에 있다.

물론 神界는 陰界요 人界는 陽界로서 陰陽 相승의 原理처럼 相通이 前提

되었다고 본다거나, 莊子처럼 生死는 一日의 晝夜의 교체로 본다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이러한 思想에 동조하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 合理的이며 實証的으로 納得케 할 길이 있는가?

筆者는 이 점에 관해서 本 論叢 第一輯 拙稿 「世界化時代와 相生倫理의 要請」, 本論 2節 2項 「大巡思想과 相生倫理」論에서 神人調化의 要旨를 「至誠이면 感天한다」는 誠의 哲學을 引用하여 可能根據를 제시한바 있다.

이 때의 天은 神과 同義概念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으며, 中庸에 「誠者 天之道」라 하였으니 「天之道 또한 神道」라 보아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誠하는 者 즉 ‘誠之者’는 ‘人之道’라는 中庸의 敎訓에 따라 精誠 또는 情誠이 至極하면 天道에 合할 수 있고 곧 神道에 人間이 通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이것은 결코 宗教가 아닌 孔孟哲學인 儒學의 原理에서 導出된 實踐哲學的 証言이다.

後日 誠·敬·信 三要論을 說하는 자리에서 誠에 대한 詳說이 있겠지만 誠은 天道 즉 宇宙의 法則이자 神明界까지 一貫하는 大眞理여서, 誠하면 아니됨이 없는 最高의 實踐哲學的 德目이기도 하다. 따라서 誠은 最高善을 實踐躬行하는 聖者의 資質이다.

誠의 德은 東西洋人, 宗教 有無를 막론하고 崇拜하고 體得하기에 힘써야 할 全人類의 必須德인바, 誠만이 通하는 世界라면 그 곳이 至善世界요 칸트(Kant)가 理想했던 ‘目的의 王國’이며 佛敎의 極樂世界이며 기독교의 天國이 따로 없다고 하겠다.

不誠實한 사람, 誠하려 하되 그 노력이 微弱하고 不足한 사람들이 혼합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각종 非理와 不正 犯罪가 범람하기 마련이고 世相은 病들어간다.

甌山은 病이 깊어 人類가 末世를 당하자 救援의 處方을 ‘醫統’이라 하였다. 그래서 甌山을 信仰의 대상으로 하는 各 宗派에서는 醫統의 正體가 무엇인가? 人類 진멸지경에서 살아남을 길은 醫統을 찾아 간직하는 일이라 하여 焦眉의 關心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筆者 또하는 이에 깊은 관심을 갖고 研究 結果를 本 論叢 二輯에 「醫統에 研究」 제 1部로부터 시작하여 四部作으로 끝냈다. 結論부터 말하면 醫統은 ‘有道’요 有道の 內容은 孝

로부터 忠·烈·禮·義·仁으로 大成한다. 그래서 飯山은 「大仁 大義 無病」이라 斷定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醫統받기를 원한다면 六大道德인 有道에 進入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誠과 有道로서의 醫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六大道德인 孝·忠·烈·禮·義·仁을 實踐하려는 강한 意志와 不斷히 實踐하고 있는 推進力이 곧 誠이다. 그러므로 誠하는 者는 이미 醫統氣運을 받고 있는 것이다. 醫統은 누구가 주는 것이 아니라 自己 스스로 修道하는 바에 따라서 自業自得하는 것이다.

「誠者 天之道」라 하였으니, 天은 곧 神明界요 誠은 人間으로 神明界와 通할 수 있는 關門이다.

이렇게 人間은 誠하므로써 醫統을 修得하고 神明界와 相通하여 神人の 調化가 可能하다는 論理가 성립된다.

3. 神人調化의 現代的 省察

위에서 幽明을 달리하는 神明界와 人間界가 誠을 通해서 開放될 수 있다는 可能性을 哲學的으로 立論하였다.

그러나 理論과 現實이 부합된다는 보장은 없다. 自然科學系列의 학문은 실험을 통해서 예측된 사실이 結果로 證明될 때 假說이 定說되나 精神科學의 경우는 理論이 事實로 立証되기를 소망하고 요청할 망정 그 소망이 모두 달성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現代哲學은 實証哲學的 추세로 기우는 것도 이러한 理論科學의 難點때문이기도 하다.

本論文은 論題 자체가 不可視的 神과 可視的 人間과의 相通 문제이고 보면 實証科學的으로 論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多幸히 筆者는 최근에 誠을 통하여 神과 人이 相合, 所望을 達성한 有名한 實例를 入手, 神人調化論을 實証哲學的으로 確認하는 契機를 마련하고자 한다.

1997年 5月 8日 아버지의 날 KBS 1TV '아침마당' 특별 초대석에 초대된 人士로 死刑囚 梁東秀씨의 경우를 소개하기로 한다. 그는 1979年 1月 3日 MBC 라디오 방송 '法窓夜話'의 '母情佛心' 主題의 主人公이기도 하다.

梁씨는 1950年 5月 29日 晋州에서 태어나 1975年 12月 24日 밤 우연히 거

리에서 2천원을 줘게 되어 친구와 함께 횡재로 생긴 돈 술이나 먹자하여 못 마시는 술을 먹고 의식 불명상태에서 집을 잘못 찾아 少女 둘이 있는 他人의 집에 들어가자 「강도야! 강도야!」 소리치는 少女를 車 운전자의 상비품 果刀 크기의 칼로 두 少女를 무차별 亂刺, 한 명은 즉사, 한 명은 중태에 빠뜨린 罪로 法廷 一審 二審 大法院에서까지 死刑이 確定되어 大邱 矯導所에서 刑 執行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死刑이 確定되고 大邱로 移監되던 날부터 그 어머니는 矯導所 담장 옆에 房 한 칸을 구하여 殺人者의 母로서 어찌 子息만 死刑을 받을 것인가! 모든 책임은 그런 자식을 낳고 잘못 가르친 偏母 自身에세 있다 하여 겨울에도 연탄 한 장 피우지 않는 冷房에서 담요 하나로 의지하며 連命, 자식에게 被殺된 少女에 대한 贖罪로 近洞의 賤役과 온갖 奉仕에 헌신하면서 每日 아침 제1번으로 자식 面會를 빠지지 않았다.

언제 死刑이 執行될지 모르는 나날을 苦役으로 보내며 刑執行이 되면 火葬하여 뼈가루를 꿀과 밥에 섞어 山野에 뿌려 鳥獸들의 먹이로 最後의 조그만 善行을 남기자는 決心이었다. 이 일이 끝나면 自身도 自殺할 것이니 子息의 最後와 똑같이 해 달라는 遺言을 側近에 이미 당부하여 놓았다.

梁씨는 在所中 佛敎에 歸依, 餘命을 悔改로 修道, 獄外의 母情과 一心이 되었다. 이 사실이 朴三中스님에게 알려져 스님의 극진한 救命運動이 주효하여 大統領의 특별 사면으로 1978年 12月 26日 無期로 減刑되었으니, 그 날이 제2의 誕生이며 地獄 문턱까지 갔다가 生還한 特例이다. 이 梁씨의 경우는 韓國 行刑史上 어머니의 至極한 精誠으로 死刑囚가 再生한 첫 人物이라고 한다.

이날 矯導官들은 『어머니의 지극한 精誠이 하늘도 感動시켰고 땅도 感動했습니다.』 異口同聲이었다고 한다.

그 어머니는 이 날까지 2년 6개월을 하루같이 매일 1번 面會者로 梁씨를 마주하고 『오늘까지는 살아서 만나게 되었구나. 살아있는 날까지는 잘못을 뉘우치고 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훈계를 잊지 않았다고 한다.

無期로 減刑되고서야 어머니는 故郷으로 돌아 갔고, 그 몇 년 후 어머니

는 別世하였다.

梁씨는 곧 大田 矯導所로 移監되고 다시 天安 開放 矯導所로 收監되던 어느날 밤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동수야, 너 서류가 다 되었다. 이 에미는 이제 갈란다. 너를 감옥에 두고 저승길로 가지는 못했다.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구나』 梁씨는 이 꿈을 꾸고 낯을 새웠다고 한다.

무슨 소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치지 않을 때 大田 矯導所 오희창 所長의 呼出命이 있어 나아가니, 『자네 얼굴이 부처님처럼 좋구나. 나갈 때가 다 되어가는 것 같구나. 지금 내가 너의 가석방을 위해서 도장을 찍었다. 지금부터 기도해라! 21년을 잊어서는 안된다.』

꿈에 본 어머니의 말씀이 矯導所長의 입을 통하여 生生하게 다시 들렸고, 이 出獄 決定 수속이 저승에 계신 어머니의 힘으로 矯導所長의 손을 빌려 實現된 것이다.

여기, 이승과 저승의 벽이 한 母情의 至極한 精誠으로 허물어지고 生者和 死者의 所望이 達成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死刑囚 梁東秀씨는 21年間 地獄을 방황하다, 1996年 2月 17日 10時 自由의 몸이 되어 出獄하였다.⁷⁾

筆者는 1997年 5月 8日 KBS 1TV ‘아침마당’ 어버이날 특별초대석의 主人公 梁東秀씨의 再生 回顧談을 듣고 그의 참회록 「어머니의 등불을 가슴에 걸고」를 入手, 精讀 끝에 神의 實存을 確信할 수 있었고 「至誠이면 感天」한다는 天理이자 哲理를 實証的으로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事例가 어찌 梁東秀씨에 限하겠는가.

筆者는 「神人調化論」을 쓰기 위해서 먼저 東西洋의 대표적 哲學者들의 神觀과 東西 宗教의 神에 대한 입장을 哲學的으로 照明하여 神과 人間의 調化可能性 여부를 타진하며, 宗旨로서의 神人調化가 宗教的 所望에 그치지 않고 學問的으로 妥當하며 實証的 實踐이 可能한가에 초점을 맞춰 執筆하였다.

단순히 大巡眞理會의 宗旨를 合理化하기에 급급하는 論文이 되지 않기 위

7) 梁東秀 著 : 「어머니의 등불을 가슴에 걸고」 - 母情佛心으로 살아난 死刑囚 梁東秀의 參회록 - 韓國經濟新聞社 刊 1997年 1月

해서 東西洋의 名聲 높은 많은 哲學들의 견해를 참조하고자 힘 쏟았으나 그것이 新興宗教가 似而非라는 비난을 예방하고 오히려 後發 宗教로서 先進宗教가 되기 위한 學問的 基礎를 견고하게 다지기 위함이었다.

東西 哲學者들의 神觀에서 특색은 지나치게 現實主義에 치중하는 側에서는 神을 敬遠하였고(孔子가 그 대표), 人間의 지식 일체를 經驗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局限하다 보면 아예 神을 否定하게 되고 (Hume의 경우), 形而上學的으로 추리하다보면 理論의 終着點으로 神을 만나야 했으며(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의 경우), 合理的이며 經驗現實에서 神의 必要性을 절실히 깨닫다 보면 칸트처럼 神의 要請的 實在論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음을 알았다. 또한 宗教이면서 神을 완전히 排除하고 自力으로 宇宙의 理法과 合一하려는 佛敎가 있으며, 哲學者 중에는 大自然을 神의 顯身으로 보는 스피노자의 汎神論, 哲學의 目的을 唯一神과 人間이 合致되는 神人合一의 恍惚境에 두는 플로티노스 같은 學者가 있음을 알았다.

이러한 哲學과 既成宗教를 배경으로 人生을 觀照할 때 有限者이기에 無限에 대한 所望, 不完全하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運命의 存在로 태어나 그것을 克服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哲學이나 宗教를 개발하였다면, 그것이 幻想이나 虛像이 되지 않기 위해서 學中 學이라는 哲學은 眞實을 규명해야 할 책임이 큰 바, 物理的 實証이 가능한 自然科學이 아닌 精神科學으로서의 哲學으로 難題였다.

더욱 「神人調化」의 경우 그 可能性 與否가 첫 關鍵이었던 바 「誠의 哲學」으로 그 실마리를 찾고 풀 수 있는 可能性을 알았다. 「誠」은 儒學의 綜合德이자 龜山의 目的論 「道通眞境」에 이르는 豫備段階이자 人類 殄滅病에서 살아 남을 唯一 處方인 醫統과 一脈相通함을 알았다.

이러한 論理가 理論으로 그치면 宗教的 幻想論에 그칠 수 있으나 筆者는 「誠」으로 生과 死의 世界가 通來함을 한 死刑囚의 至誠어린 母情에서 確認하였고, 그 精誠은 死後에도 消滅되지 않고 保護神의 偉力を 발휘함을 現實世界에서 天下 萬人에게 立証하여 「神人調化」의 實例를 모두 보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哲學과 宗教的 所望도 一連의 이러한 事例로 보아 人間으로서 할 수 있는 最善과 至誠을 다하는 者에 限해서 神人合一的 調化의 成功

을 거둘 수 있으며, 末世에도 살아 남을 수 있는 醫統이 거기에 있음을 確信해야 하겠다.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화하여 삼계의 역사에 붙여 神人の 해원을 풀려는 것이나, 현하의 학교 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 복록등 비열한 공리만 빠지게 하니 그러므로 판 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느니라」하시고 말씀을 마치셨도다』⁸⁾

하였으니, 이러한 경우가 神과 人의 원한을 풀어주는 成道가 판 밖에서 이루어진 事例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⁹⁾

成道가 판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龜山을 信奉하는 宗門 중에서만 成道하고 道通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至誠스런 사람이면 누구든지 醫統을 取得하고 成道하여 道通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宗門 중에서 不誠實하고 背恩無道하며 不信스럽고 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成道の 마당에 들어설 수 없으며 幹部 道人이라 하더라도 道場 上席에 있어도 神은 속일 수 없어 心中을 꿰어 보아 成道圈에서 멀리 제외 할 것이다.

宗門 道人이면서 宗教儀禮 行事 儀式은 철저히 지키면서 마음이 精誠스럽지 못하면 절대로 醫統을 받지 못하므로 宗教人이 될 필요가 없다.

道人이 된 有利한 조건은 龜山의 遺訓을 기꺼이 익힐 수 있다는 것이요 道人이기에 잘못이 있다 해도 寬容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神人調化의 가르침은 天도 感動할 만큼 精誠과 情誠이 極盡하면 아니되는 일이 없다는 信念을 굳힘이라 하겠다.

筆者는 本 論文에서 至誠하여 感天하고 저승의 神과 이승의 人間이 通來한 實例를 들어 판 밖에서 이미 神人調化가 可能함을 證明하였다.

大巡眞理會의 宗旨가 결코 幻想이나 소망에 그치지 않고 實踐哲學的 宗教임을 確信할 것이다.

8) 典經 : 교운 1장 17절

9) 安鍾沄 著 「哲學的 側面에서 본 神人調化論」 大巡思想論叢 第3輯, 150-154面 參照

Ⅲ. 解冤相生論

大巡眞理會가 「解冤相生」하는 宗旨인 근거는 다음에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¹⁰⁾

여기 先天에서는 人間 事物이 相剋에 지배되어 冤恨이 쌓였으나 後天에서는 神明을 調化하여 冤恨을 풀고 相生의 道로 仙境을 세운다는 聲明을 信奉하기 때문이다.

冤恨을 解冤해야 相生社會가 到來한다는 因果原則的 聲明이다.

1. 典經上의 冤의 由來

中國 歷史上 가장 이상적이며 最善政을 베푼 사람이 堯임금이라 한다. 그러나 완벽하고 至善한 王인 堯임금이 不肖한 아들을 두어 王位를 계승치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堯王 前에 또 몇 千年 歷史가 있었을 것이나 傳하여 지지 않고 堯를 絶頂으로 한다면 歷史를 소급하여 不降하는 未開期가 長久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絶頂史期에 人間의 汚点이 시작하였으니 堯임금의 아들 丹朱가 王位를 계승 못하여 怨恨을 최초로 품게 되었다고 한다.

典經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를

10) 典經 : 공사 1장 3절 98面

첫장이 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찬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倉梧)에서 붕(崩)케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 이제는 천지에 가득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¹¹⁾

여기 丹朱가 「人類의 기록에 시작이고 冤의 역사에 첫 人物」이라 하는바 이것을 記錄에 의거할 때 첫 人物이라는 것이지 人類 蒼生이나 草創期라 한다면 문제있는 글이라 할 것은 人類發生期가 몇 萬年前이 아니라 몇 十萬년이 넘는지 人類學者들도 단정하지 못하고 出土되는 遺骨 化石 遺物 등으로 年代를 추측한다. 史學도 實證主義를 따라 無根한 이론은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論할 때 반드시 근거있는 理論이어야 볼 수 없는 사실을 실감나게 수용하게 된다. 그래서 本 典經의 引用文도 解明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 「기록에 시작」이라 함은 丹朱 이전 몇 千 몇 萬年에도 있었던가 기록에 없으니 알 길이 없어 言及할 성질이 못 된다는 뜻이 있고, 「冤의 역사의 첫 장」은 堯의 아들 丹朱라는 史實을 밝혔다. 冤이 丹朱외에 그 이전에도 있었던지를 거론하지 않고 丹朱를 一番 人物로 내세운 것은 「歷史」도 기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록없는 過去는 사건이 있었더라도 인정할 사람이 없으면 忘却의 歲月로 흘러가서 虛無가 되기 때문이다. 有史 以前과 以後를 명백히 구분하여 以前은 先史時代, 以後를 有史時代로 上古 中古 近古期라 한다. 上古期는 아무리 長古한 듯 하여도 千代를 넘어가는 歷史期는 없고 先史期는 萬年代를 넘어서도 모두 이에 해당하여 발굴에 따라 몇 十萬年代로 소급된다.

그러므로 典經의 「冤의 歷史의 첫 장」의 人物은 東洋의 歷史上 첫 人物이라 간주해야 옳을 것이다.

東洋의 歷史에 五千年을 넘는 나라는 없고 中國 韓國도 五千年 미달한 나라이고 보면 堯王期 四千 四千五百年代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五千年 이

11) 典經 : 공자 3장 4절 130面

하의 歷史國도 韓國의 檀君과, 中國의 堯나 舜의 實在性은 遺物로 立証된 바 없이 口傳 記錄등으로 追認하는 이상 先史라 할 것이다.

이에 比해서 西洋史圈의 이집트(Egypt)의 경우 歷史가 五千年代를 월등히 넘었음을 피라미트 스피크스등 物証이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物証은 있으나 당시 어떠한 형태의 政治가 베풀어져 王을 위해서 영원히 不可思議한 巨事가 이루어졌던가, 기록이 없어 풀리지 않는다. 이집트가 산악 지대도 아닌 平原에 人力으로는 도저히 巨石을 운반하여 신비롭게 蓄積할 수 없었을 것을 해냈다는 사실은 雄壯한 人間의 歷史藝術이라 하겠으나 실은 수 많은 奴隸같은 無産層이 혹독한 苦役을 바쳐 石山을 쌓아 올렸으니 恨 많고 冤恨이 뭉친 歷史的 史實이다. 거기 冤恨의 實話가 무수하게 전해 오다 失話되었는지, 奴隸階層은 牛馬처럼 理由도 不平不滿도 없이 役事에 生命을 바치고서도 冤恨이 없었는지 기록이 없다. 추측컨대 현대와 같이 科學文明이 고도로 발전되어 大難工事に 증장비가 동원되었어도 一·二基가 아닌 多基 피라미트群 준공에는 難事였을 것을, 五千年前 未開時代에 오로지 人力으로 해냈다는 것은 勞役者는 人間으로 보지않고 지배층을 위한 重裝機人生으로 보아 本人 스스로가 有口無言 重役 이외에 잡념이 없었을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不平도 冤恨도 없이 그 사회의 제도로 無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丹朱의 경우는 그 사회의 제도로 보아도 王子로서 父王의 王權을 당연히 승계하리라 王子 本人과 百姓이 믿고 있던 것을 물리치고 舜에게 天下를 맡길 때 丹朱의 기대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이었을 것이다. 冤恨 중에서도 天下를 手中 직전에서 잃은 것은 最大의 痛恨이며 역사상 最初의 悲恨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典經에 甌山の 言明 「冤의 역사의 첫 장」이라 한 것을 알았다.

丹朱의 冤恨 이후 한없이 많은 怨恨 事件들이 一波 萬波로 전파되어 罪없는 사람들이 무고하게 罰받거나 큰 損失을 당하고 怨恨을 보복하기 위하여 기회를 기다리다가 몇 갑절 큰 犯罪를 저지르게 된다. 특별히 修養있는 君子格이 아닌 사람은 犯行을 계산해서 같은 刑量을 감행하지 않고 復讐心理로 倍量이상 단행하려 한다.

이래서 冤恨이 넘치는 社會는 犯罪가 난무하는 社會로 필연적으로 이어진다.

甌山이 解冤을 강조하고 「解冤公事」를 보았다 하며 「이 때는 解冤時代다」라 종도들에게 강론할 때 얼마나 많이 하였기에 典經에 거론된 「解冤」의 수가 34회나 된다.

대부분의 犯罪 根源이 冤이므로 解冤은 犯罪없는 社會를 만드는 근본 요법이요 仙境을 세움이라 하였다. 他 宗教에서는 現世를 초월해야 天國이나 極樂世界를 갈수 있다고 하나, 甌山은 現實에서 解冤으로 人間과 神明이 調化되는 社會요 人間이 가서 만나는 社會가 아니라 神明이 와서 前生에 풀리지 않았던 恨이 풀리는 社會라 하였다.

그 가능성에 관해서는 「神人調化論」에 詳說한 바 있어 줄인다.

2. 相生의 道 倫理의 길

모든 生命體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살 能力이 허락하는 限 소망껏 살 義務가 있고 삶을 즐길 權利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微物 하나까지 열심히 살기가 바쁘며 生命을 위협 받으면 그것이 할 수 있는 힘과 기교와 재능을 다 내어 本能的 保護를 한다. 이것은 萬生命의 공통된 生의 愛着으로 보아야 하며 살아 있는 者 모두 잘 사는 것이 生의 法則일 것이다. 그러나 生者의 生命을 害롭게 하거나 박탈한다면 그것은 自然의 生成法則에 위배할 것이 明白하다 하겠다.

이것이 宇宙의 無言의 原則이 實在함이다.

宇宙의 原則이 嚴存한다면 宇宙的 合法과 違法이 있을 것이고 合法은 善이고 違法일 때 惡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宇宙的 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할 대 곧 相生은 善을 이루고 相兇은 惡을 결과한다.

人生界도 相和할 때 相生하고 相爭할 때 相兇한다는 사실은 또 自明한 實象이다. 東西洋의 어느 倫理學者의 學說 理論을 막론하고 生命保有者를 기준해서 共認할 最大의 生命倫理의 原理는 「相生」에 異議를 제기할 者 없을 것이다. 倫理學者 個別的인 所見은 다양하겠으나 「서로 같이(相) 살아 갈

「生」길」을 밝히는 것에 공통되었다면 倫理와 相生은 統一되었다. 倫理가 萬說이 분분하더라도 초점을 相生에 맞춰야 正說이 될 것이요, 향락이나 행복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目的이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각종 유희 퇴폐에 빠지는 것도 一時的 樂과 幸福을 즐기다가 生을 중도에 끝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요 그것이 健全한 즐거움이 아니라 「樂」 自體를 「生」 以上으로 착각함이다.

「樂」은 生의 과정에서 派生하는 所得중의 하나이며 樂을 위한 生은 곧 消耗된다. 마치 麻藥을 먹고 환각에 빠져 결국은 中毒症者가 되어 生命을 잃게 됨과 같다. 物理的 毒藥 못지 않게 퇴폐적인 향락에 도취되는 것도 精神 健康을 해치는 毒素가 침투된다.

이제 「生은 生産이다」임을 깨닫고 이 原則을 不動의 信條로 살아 갈 때 곧 健全한 生의 길」이 열린다. 그러나 現代 젊은이들은 삶」의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마음껏 能力껏 즐기자는 主義로 즉 Enjoy(엔조이)하자는 生活觀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 발전적 生活方式이 아니라 不降生路를 택하고 있음이다.

生産이 健全한 삶」의 길인 것은 한 農夫를 예 들어보면 이해가 빠르다.

근면 성실한 농부가 열심히 농작물을 가꿨을 때 뜻대로 무럭 무럭 成長하는 즐거움과 增産을 所得하는 즐거움이 「生産樂」이라 하며, 樂 위한 樂은 「消費樂」이어서 길게 못 간다. 生産樂은 未來로 갈수록 增大하여 本人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협조하여 倍加하므로 이웃과 相樂하니 「相生樂」이라 할 수 있다.

要約하면 相生은 生産의 道이고 相樂의 道이므로 相樂的 生産은 宇宙生成法則의 眞意가 거기에 있음을 깨달아 實踐해야 할 것이다.

地球에는 軌道가 있고 달과 太陽에도 軌道가 있을 뿐아니라 宇宙內 무수한 天體들 하나 하나마다 각자의 軌道가 있는바 모두가 整然하게 자기의 길을 運行하므로 宇宙의 질서에 主호의 이탈하지 않고 大平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바로 相生이라 함은 宇宙의 運行秩序法則을 본받아 人生들도 서로 화목하고 즐겁게 살아갈 길을 말한다.

人間社會에서는 이것을 축소하여 人間들이 相互 찾아 지키자는 것이 곧

倫理인 것이다.

筆者는 拙著「民主倫理學要論」1페이지 머리말에서 倫理의 定義는「人道」, 倫理學은「人道の 科學」이라 내리고 人道에 두 가지가 있는바 可視的 物理世界의 道路와 不可視的 精神의 道가 있다고 하였다.¹²⁾

物理世界의 道路는 人間이 空間世界에서 꼭 往來의 需要가 있어서 開通하였고, 精神世界도 人間과 人間으로 構成된 社會에서 상호간에 뜻을 통해야 하고, 내가 당신에게 꼭 해야 할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길인 精神의 道가 開通해야 하는 바 그것을 倫理라 한다.

倫理의 必須性은 마치 地域間에 길의 必須性 때문에 불가불 있어야 하는 것처럼 精神的 道인 倫理는 같고, 倫理가 없는 社會는 大雪 大洪水로 道路가 完全 凍結되어 고립 무원인 村落을 상상하고 그 상태가 長期化될 때 生活가 가능한가 反問의 答이 나올 것이다.

道路 없는 人家와 倫理 없는 人間社會는 곧 野蠻巢窟이라 하겠다.

倫理學은 行爲의 規範을 연구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미 規定된 律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時間과 空間의 變化에 따라 어떤 行爲가 가장 適合한가 創意的 合理判斷을 연구하는 學問이어야 한다.

倫理學은 精神科學이기 때문에 精神的 實在을 규명하며 物質이 關여하지 못하는 領域을 推理로 實在을 더욱 확대하여 제약없는 精神世界의 眞理를 개척하여 간다.

가까이로는 父母와 나 사이의 마음의 길이 열려야 사랑이 수시로 왕래하고 兄弟와 길이 뚫리므로써 우애가 있고 遠近 親族과 親知 社會人등 접촉하는대로 義理와 人情이 통해야 한다.

魚類는 水中이 生動의 場이듯 人間은 群衆이 共生하는 社會가 活動의 場이므로 社會生活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幸과 不幸한 人間인가 결정된다.

人生의 幸福은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하므로 活動하는 人間 상호간에 善隣 愛로 相扶相助하여, 하는 일 모두 成事하며 그런 이들과 만나는 것 自體가 生의 樂이 아닐 수 없다.

宗敎적으로 來世에 天國·極樂世界가 있다고 하나 그 世界의 有無는 알

12) 安鍾沄 著「民主倫理學要論」螢雪出版社, 1993 刊, 1~2面 參照

수 없으나 倫理人은 現實 속에서 道德的으로 行實하고 道에 樂하는 樂天人으로 산다면, 天國을 동경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甌山の 相生之道는 바로 倫理의 길이요 倫理를 지켜가는 사람은 本人이 精神的으로 物質的으로 生産人이어서 樂이 있고 他人에게는 有益한 言行은 있을 망정 추호의 被害가 없을 것이므로 仙境이 別界에 있는 것이 아니다.

相生哲學은 仙境같은 理想世界가 人間 모두 倫理의 실천으로 現實에서 실현된다는 確信을 다져준다. 또한 그것이 科學的 倫理學의 實踐的 立証이기도 하다.

宗旨 解冤 相生은 人間 모두 억울하고 怨恨 쌓인 사람없이 相扶相助하고 相和하며 平和롭게 살아가는 樂園社會를 실현하자는 高次元의 倫理 道德哲學의 實踐이다.

IV. 道通眞境 論

道通眞境의 宗旨는 앞 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을 綜合한 結果論이자 個人과 人類社會의 希望論이다.

大巡眞理를 이해하고 入道한 道人 모두에게 왜 入道하였으며 소망이 무엇인가 문의하면 이의없이 「道通」이라 할 것이고 社會的으로 「眞境의 實現」이라 할 것이다.

非道人이 大巡眞理會 入道를 여러 차례 권고를 받고서도 入道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간결하다.

첫째 道通이 있는가? 못 믿겠다.

둘째 眞境 즉 仙境이 있는가? 幻想世界이다.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것이다.

筆者는 32年 前에 入道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布德하여 보았으나 入道를 決心하고 따라온 사람 중 한 사람이 유명하다. 그 사람은 가장 가난해서 살 길이 없어 筆者의 집에서 여러 해 머슴살이 하던 少年이었다. 初等學校 入學할 형편이 없어서 無學이었고 스스로 文盲을 눈 뜨고자 晝耕夜讀이 아니라 晝耕 夜開盲으로 기초 漢字와 한글 解讀을 스스로 해결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近 五十年前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少年 身分이었으므로 青年 大學生 筆者는 대단한 貴人으로 알았던지 하는 말 모두 옳은 말만 하는 사람으로 알아, 말 할 때마다 『예, 예!』 뿐, 『아니요』가 없었었다. 還甲이 넘은 오늘까지도 이 사람은 筆者를 少年시절 그대로 믿고 있어 『相俊이 도통이 있네. 도통하여 道通君子가 되면 지금까지 자네가 苦生하여 온 지난 날을 씻고 하고자 하는 일 모두 뜻을 이룰 것이네』 이말 한번에 이 사람은 『그래요? 그래요! 예! 믿죠. 어른을 따르죠!』

참으로 옛 날이나 변함없이 純樸하고 淳朴한 이 사람이기에 道通을 믿고 라기보다 筆者를 믿고서 선뜻 入道한지가 二十餘年이 되었다.

이 實例를 보아도 道通이라는 말은 있어도 事實 與否는 회의적인 것이 世人들이다.

筆者는 學徒로서 學 中 學이라는 哲學을 專攻하기에 「道通」에 관한 限 애 매한 論述을 할바에는 論文을 쓰지 말것이요, 執筆한다면 「哲學的 道通」을 論述하고자 實証的 道通論을 택했다.

즉 道通이 言語만 있는 것이 아니라 事實世界에 있었음을 證據로 제시하고 過去에도 있었던 道通이 왜 現在와 未來에도 없겠는가 確信을 合理化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過去 道通했던 實証의 人物이 누구인가 할 때 李舜臣이라고 굳게 믿는다.

筆者의 所信이 偏見이 아님을 證明하기 위해서 歷史的 實錄을 샅샅이 조사하여 道通이 아니고서는 不可能하였음을 讀者들이 共感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本 論文을 李舜臣 研究論文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나 道通이 主題임을 거듭 밝힌다.

그러나 道通도 先天道通과 後天道通이 있는 바 李舜臣의 道通은 先天道通이요 後天道通이 道人 바라는 바요 아직 後天世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天地公事 한 飯山외에는 누구도 모른다.

다만 李舜臣의 道通으로 半萬年의 韓民族史가 沒落에서 회복되고 韓民族의 血統을 찾을 名分이 없어져서 「韓民族」 語彙마저 古語辭典에서나 찾아

봐야 할 歷史 分水嶺에서 구원한 偉業을 쌓았다.

李舜臣 한 사람의 道通으로도 한 民族의 歷史가 存亡이 決定되었는데 後天 道通은 全人類의 歷史가 새로운 章을 여는가 自滅하는가 달려있다.

筆者의 論文 本論叢五輯 中에 있는 「歷史上 道通인과 到來할 道通眞境推論」에서 經驗哲學的 方法으로 歷史的 經驗事實인 道通은 어떻게 했는가 正確히 알고자 詳說하였으나 本文에서 目次와 結論 部分만 소개한다.

I 章 先天 道通人 李舜臣論

1節 仁者로서의 李舜臣

1)項 私生活을 통해서 본 仁者의 面貌

2)項 公務를 통해서 본 仁者의 面貌

에서, 李舜臣은 儒道로 道通한 사람인만큼 얼마나 儒家에서 儒道로 道通할 수 있었나 알아 보았다.

儒道는 孝忠人으로 시작하여 仁人이 되는 것이 目的論이라 하겠다.

李舜臣은 父母께 極盡스런 孝子였고 子女와 姪 모두에게 간곡한 父情으로 保育한 대표적이 어버이였으며 武士답지 않게 夫婦愛가 뛰어났음을 亂中日記로 보는 듯 實感할 수 있다.

公務를 통해서 본 仁者의 面貌 또한 孟子의 仁者의 原則에 適中함을 實感케 한다.

『以力假仁者霸，霸必有大國。以德行仁者王，王不必待大。湯以七十里，文王以百里。以力服人者 非必服也，力不贍也。以德服人者，中心悅而誠服也。如七十子服孔子也。』(孟子：公孫丑 上)

武力으로 仁을 假託하는 者は 霸者요, 霸者는 반드시 大國을 필요로 하고, 德으로 仁을 行하는 者は 王요 王은 나라가 肥大함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湯王은 開國을 둘레 七十里, 文王은 둘레 百里로 시작하였다. 힘으로 백성을 복종하는 者は 마음을 복종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한 힘을 더욱 필요로 한다. 德으로 백성을 복종시키는 者は 마음 속으로 기뻐하여 진심으로 따르니 孔子의 제자 七十名이 感服하던 경우와 같다고 한다.

儒敎의 政治理想인 王道政治는 곧 聖君政治이니 그 실현은 「以德行仁」에 있고 以德行仁者는 中心悅而誠服하기 때문에 백성이 雲集하게 된다.

孟子는 三四千年前 中國에서 實例를 찾았지만 우리는 德으로 仁을 베풀어 백성들 마음속 깊이 眞情으로 感服하여 모여드는 仁政 곧 聖政의 實例를 韓國 朝鮮朝 때 李舜臣에게서 찾을 수가 있다.

그는 一武官에 불과하였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열광적인 환영으로 『우리는 살았구나! 우리 사또(使道) 오셨으니...』하고 기뻐 날뛰며 따르는 壯丁들이 120餘名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들이 后日 壬辰倭亂 決戰的 大勝 兵士로서 丁酉 9月 16日 鳴梁 海戰 大勝捷의 神話를 남겼다.

1. 天命을 完遂한 先天 道通聖人 李舜臣

天의 思想에 임하는 자세가 두 가지가 있으니 天 앞에 運命的으로 放任하는 消極性이 있고 다음은 天意를 실천하여 天意에 보답하겠다는 積極性이 있다.

이것이 곧 天誓思想으로서 天意를 실천하여 天意에 부합되는 즉 天과 我가 一致되는 境地에 도달하는 것이다.

天意를 大覺하고 天意를 실천하는 者에게는 天이 보호하고 힘을 북돋우어 주며 絶對力 발휘가 가능하다.

이 뜻을 알고 다음 李舜臣의 長劍에 새긴 劍銘을 대해 보자.

『三尺誓天 山河動色,
一揮掃蕩 血染山河.』
三尺 칼로 하늘에 맹서하니
大地가 떨고
한번 휘둘러 쓸어 버리니
피가 江山을 물들인다.

天意를 거역하고 殘忍無道하게 罪없는 이 나라 百姓을 처참한 비극에 빠뜨리니 天의 激怒를 이 내몸이 대신하여 痛快無比하게 天賊 徒黨을 도탕하고야 말겠다고 天 앞에 盟誓함이다. 그렇기에 天이 창조한 森羅萬象까지도 어찌 이 내 뜻을 通察하지 않으랴!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
 바다에 맹서하니 魚龍이 떨고
 산에다 맹서하니 草木도 感動터라.

이 詩句는 天地神明까지 達通한 天人合一의 大覺者의 경지에서 吐露한 氣慨의 表明인 大道通詩다.

이처럼 天의 힘으로 내 힘을 삼은 李舜臣이었기에 그 勇猛이야말로 超人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朝廷에서 포은 全滅상태의 우리 水軍을 폐하고(元均이 水軍을 全敗함) 陸軍과 合勢할 것을 命하자 李舜臣은 의연히

『아직도 우리 배가 12척이 남아 있는데 어찌 水軍을 폐할 수 있으리오,
 微臣이 죽지 않은 限 敵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¹³⁾

라는 狀啓를 올릴 수 있었다. 7年이나 계속하는 유례없는 大戰을 12척의 낡은 戰船으로 對戰하겠다는 그 氣魄, 이것은 汎人으로 상상 못할 絶對力을 배경한 發言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發言이 汎人の 無根한 豪言이 아니라 天이 保證하는 하늘의 뜻이었음이 丁酉年 9月 16日 鳴梁 앞바다에서 證明되었으니 12척 對 比敵의 대상이 않되는 330척의 敵船과의 海戰에서 痛快無比하게 敵을 大破하고 我軍의 12척은 의연히 개선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人類 古今 그 類例를 찾을 수 없는 大勝捷이야말로 天의 保證을 받은 超人の 偉人の 偉力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李舜臣 자신 이 奇蹟的 이 大勝을 人力으로 完遂했다고는 도저히 상상 못할 일이었음인지 日記에

『...此實 天幸.』¹⁴⁾

戰況 長文 끝에 이렇게 마무리 졌다.

或者들은 말하기를 壬辰倭亂에서 우리 水軍이 優勢할 수 있었던 것은 神秘스런 戰船 거북선의 역할이 至大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漆川梁 海戰에서 丁酉 7月 15日 元均 三道水軍 統制使가 이끄는 우리 水軍 總兵力

13) 李忠武公 全書 下 43面 參照

14) 亂中日記 丁酉 9月 16日 晴

거북船을 포함하여 二百餘척의 全艦隊가 거의 전멸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天人 李舜臣 對 拙將 元均의 天地같은 人間 等差를 새삼 실감하게 한다. 敗戰將 元均은 그 海戰에서 戰死하였다.

1598年 12月 16日(戊戌 11月 19日) 子正 李舜臣은 손을 씻고 船上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 앞에 맹서하기를,

『이 원수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恨이 없겠습니다.』

하고 天地神明이 感動토록 두 손 모아 빌어달 때 이상하게도 天上에서 큰 별이 바다로 떨어졌다고 한다.¹⁵⁾

이 날 敗走 最後를 發惡하는 倭敵 總力과 선두에서 勇猛 無雙히 督戰하다 李舜臣은 壯熱한 戰死를 하고 死后도 아들과 조카에게 遺訓으로 代戰하여 그의 長劍에 새겨 놓은 天誓 그대로 원수를 一揮 掃湯하고야 말았으니 그 날이 곧 7年 大戰의 終戰日이며 倭軍敗戰日이요 李舜臣은 天人으로 天命을 完遂하고 一生을 끝낸 날이다.

너무나 奇蹟같은 날이다.

오만(傲慢)했던 明國 將帥 陳璘 都督도 宣祖께 李舜臣을 稱頌하기를

『經天緯地の 才操와 補天浴日의 功勞가 있다.』

라 하였다.

天의 六氣(陰·陽·風·雨·晦·明)와 地의 五行(金·木·水·火·土) 다 스리는 재조와 天을 도와 太陽을 더욱 빛나게 한 功績이 있다는 讚辭이다.

옛날이나 현재도 中國 사람들은 他國人을 과찬하는 경우가 흔치 않고 이 같은 無上의 極讚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壬辰倭亂 때 援軍으로 出征했던 名將 陳璘의 오만하기가 이를바가 없음은 亂中日記에서도 여러 곳 지적할 정도였다. 그런 陳璘이가 李舜臣을 天地造化할 재조가 있고 실지로 能力을 부렸다 하였으니 결코 지나친 評價라 할 수 없을 것이다.

筆者 홀로 李舜臣을 先天道通 그 中에도 上才道通聖人이라 주장하는 것도

15) 李忠武公 全書 下 48面 李芬 지음, 忠武公行錄 參照

當時 同參하여 目睹한 證人 陳璘將帥가 「經天緯地の 才操와 補天浴日의 功勞가 있다」한 讚辭로도 足히 합당하겠다.

2. 後天道通眞境 論

여기서 말하는 「後天」은 人生이 탄생 이후를 말하지 않고, 새로운 世相, 새로운 未來世界를 말한다.

만일 現在가 過去와 같고, 來日 또 來日이 過去와 現在처럼 變化없이 一律적으로 계속된다면 後天 世界나 世相이라 이르지 않는다. 時間은 未來는 모두 「새날」이라 하지만 「새 날」이 「새 世相의 날」은 아니다.

「새 世相의 날」이나 「새 世界의 날」은 참으로 過去에 없었던 別天地와도 같은 理想郷이 실현된 世界를 이른다.

그러나 世人들은 새 世相을 文化가 특히 物質文化가 高度로 발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바 오히려 人性은 冷情하고 打算的이며 奸惡하여 溫厚했던 옛날이 그립다고 한다.

이 점 後天과 未來의 다른 바가 있고 後天世界가 언제 올지 기약이 없다. 그렇다해서 幻想的 未來라 할 것은 아니며 人間들의 理想世界가 所望世界요 노력으로 실현을 달성한다면 예상보다 빨리 올 것이다.

後天世界가 어떻게 해야 실현되는가?

그 길은 순서가 있는바, 첫 단계는 醫統을 得해야 하고 다음은 成道하고 道通하면 眞境이 열린다.

基本인 醫統이 무엇인가가 甌山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道人이 한결같이 연구하고 살 길이 醫統에 있다고 굳게 믿기에 이른다. 그 이유는 典經이나 大巡典經에 다음 句節이 있기 때문이다.

『상제께서 앞날을 위하여 종도들을 격려하여 이르시니라. 「바둑에서 한 수만 높으면 이기나니라. 남이 모르는 공부를 깊히 많이 하여두라. 이제 비록 장량(張良) 제갈(諸葛)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어느 틈에 끼어 있었는지 모르리라. 선천개벽 이후부터 수한(水旱)과 난리의 겁재가 번갈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 아직 병겁은 크게 없었나니 앞으로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 낼 방책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알아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 봄으로부터 이 동토에서 다른 접재는 물리쳤으나 오직 병접만은 남았으니 몸 돌이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 오듯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¹⁶⁾

後天 眞境이 열리기 전에 「병접이 남아 있어 몸 돌이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오듯 하리라」하니 後天世界는 다음 단계의 別 世界이다. 後天은 仙境이라 해도 人類가 모두 病劫으로 진멸지경이 된다면 누가 남아있어 榮華와 幸福을 누리겠는가?

그러므로 後天 道通眞境에 앞서 先須조건이 해결되어야 死線을 넘어서 新生의 온갖 榮光을 보장 받게 된다.

문제는 「앞으로는 병접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책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잘 알아두라」하였으니 병접에서 구출할 방책이 없어 온갖 奇異한 법과 약물을 써도 무효하나 한가지 살 길은 醫統을 알아두라는 것이다.

여기 문제의 「醫統」이 무엇인가?에 살 길이 집결되었다.

死線을 넘어설 處方인 醫統이야 말로 道通眞境에 들어 설 자격을 취득함이라 하겠다.

甌山 말씀에 醫統은 奇異한 秘方도 珍貴한 藥物도 아니라 하였으니 非物質이요 非秘方임을 言明하였다.

이러한 醫統과 道通 入眞境과는 直結되었으므로 醫統에 관한 올바른 研究를 하여 정확한 醫統觀이 서있지 않고서 甌山의 참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

筆者는 이 때문에 「醫統에 關한 研究」를 시작하여 連 四部作으로 끝내기에 이르러 本 大巡思想論叢 제2輯으로부터 제5輯까지 연재하였다.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醫統 받지 않고 道通하여 後天眞境에 들어 가려한다면 司法考試에 不合格者가 判檢事가 될 수 없고, 운전 면허시험에 不合格한 者가 車를 운전할 수 없으며, 重病者가 華麗한 希望을 꿈꾸는 것과 같다.

後天世界가 열리기 前까지는 先天世界가 지속되고 있다. 先天世界는 大病 小病에 얽고 있는 바 그 病名은

『大病出於無道 小病出於無道』

라 하였고

『醫統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

大仁大義無病…』¹⁷⁾

라 하였다.

甌山の 「道通」과 「醫統」말씀은 몇 句節되지 않으나 研究하는 學者나 信仰人들은 「의통을 잘 알아두라」는 甌山の 말씀을 명심하고 있다면 가장 깊은 관심처라 하겠다.

이제 後天 眞境社會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後天世界는 한 두 사람의 道通으로 열리지 않고 國家 單位로 世界平和 和 人類平和가 실현되는 新歷史期가 개막된다.

둘째 後天世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生存 資格이 있는가 審査에 통과해야 하는바 그것이 醫統이요 醫統은 개인별로 취득하는 것 누구가 의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미 甌山이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¹⁸⁾

『…도통될 때에는 유불선(儒佛仙)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¹⁹⁾

말씀한 바와 같이 각자 닦은 바에 따라 道通이 열리는데 그 자격 조건인 醫統도 각자 취득한다. 道通과 醫統의 차이는 道通의 경우 上中下의 계급이 있으나 醫統은 等級의 차이없이 통과했는가 못 했는가 둘 중 하나일 뿐이다. 마치 예비시험에 합격했는가不合格인가 뿐인 것과 같다.

우선적으로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本考査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하듯 醫統을 받아야 하는바 甌山の 遺書에 의하면 孝子が 될 것, 忠誠스러운 사람이

17) 典經 : 행록 제5장 38절 94~95面

18) 典經 : 교운 제1장 33절 169面

19) 典經 : 교운 제1장 41절 172面

될 것, 恩惠를 항시 잊지 말고 感謝할 것(烈 즉 不忘師, 背恩忘德치 말 것), 每事에 禮義바를 것, 正義로울 것, 仁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²⁰⁾

사람이 이렇게 道德性을 갖췄다면 결점이 없다 하겠으니 새 世相이 되는 날 새 歷史를 창조할 能力이 있다.

셋째 後天世界는 醫統 받은 사람만 살게 될 것이므로 道德世界요 高度의 人格者 社會일 것이므로 奸惡하고 不正한 者는 있을 수 없고, 살 자격이 없어 無惡 純善 善人 社會일 것이다.

넷째 他 宗教에서 소망하는 天國이 따로 없고 醫統을 취득한 사람만으로도 天國이 무색할 地上天國이요 거기가 仙境이다.

天國과 仙境의 차이는 前者는 現實을 초월한 來世의 理想世界이나 仙境은 肉身이 살고 있는 現實 속에 無惡 純善人들이 幸福하게 사는 社會이다.

다섯째 온갖 怨恨이 해소되어 상부상조하며 和樂하게 살아가는 解冤相生 社會여야 한다.

여섯째 順理만이 通할 뿐 逆理는 추방된 社會여야 한다.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하고 당신은 나를 필요로 하는 二律待對의 社會 構造原理가 定着되어야 한다.

일곱째 至誠이면 感天한다고 하듯 天界와 人界가 開放된 社會가 되어야 한다. 至誠스런 사람들만이 살아 神明이 自由롭게 通來하여 神人調化社會가 실현될 것이다.

以上 如斯한 後天道通眞境의 특색을 推理하여 보았다.

結 論

一般的으로 宗教를 알고 있기는 믿음으로 출발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라 할 것이다.

有名한 西洋 中世 基督教 哲學者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 AD160~222)는 『不合理的 故로 나는 믿는다.(Credo quia alsundum)』라는 宗教人으로서 告

20) 典經 : 행록 제5장 38절 94~95面

白을 남겼다.

그러나 形而上學的 哲學을 토대로 信仰界에 들어가는 佛敎가 있고 그 中에서는 唯識宗 唯識哲學派가 있을만큼 무조건 信仰으로 一貫하는 것이 宗教의 正體는 아니다.

現代哲學의 경향은 形而上學까지 볼 수 없는 裏面의 世界를 推理한다 하여 그것은 信念에 속하므로 宗教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올바른 알지 못한 기초위에 信仰을 쌓아 올라가는 것도 先進宗教라 할 수 없다.

進步的 宗教는 正確한 實証哲學的 기초 위에서 永遠한 當爲世界를 先導 실현하는 役割을 해야 한다.

실현 可能性도 없는 소망을 기대하는 宗教는 文化宗教라 할 수 없고 精神的으로 物質的으로 消耗가 클 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大巡眞理會의 宗旨를 照明하기로 한다.

첫째 陰陽合德은 所望이 아니라 宇宙의 構造原理를 確認하고 正常化할 것을 다짐함이다.

西洋人들이 萬象을 陰陽의 和合이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嚴然한 事實이요 自然科學的으로나 形而上學的으로나 一致하는 原理이다.

이 原理를 宗旨로 하였음은 人間들이 過慾으로 非正常的 삶은 누리고 있음을 경계함이다. 不正 陰, 不正 陽의 生活은 變態的 삶이므로 절대로 長久하지 못 하고 소멸이 不遠하다.

그러므로 正陰 正陽의 和合은 끝없는 生成이 보장된다. 人間社會의 萬事 모두가 陰陽 和合의 原理를 지키면 투쟁 不和가 없고 久遠의 平和가 실현된다는 實証哲學的 교훈이다.

둘째 神人調化는 상식적으로 不可能한 것같고 體驗이 없고서는 是認하기도 어려운 宗旨이다. 神은 神明世界에 있고 人間은 現存世界에 別界로 있다.

神은 있다면 靈으로 있고 人間은 肉身으로 있어 存在方式이 다른데 어떻게 神人이 調化할 수 있는가?

그것은 儒學의 誠의 哲學으로 可能性과 實証을 제시하여 준다.

無誠意한 大衆들에게는 可能性도 없고 體驗도 있을리 없으나 至極한 精誠

을 베풀어 본 사람에게는 論理를 떠나서 體驗이 立証하여 준다.

그러한 根據에서 神人調化의 宗旨는 誠實한 人間에게 希望을 준다.

셋째 解冤相生은 不平 不滿이 많은 社會, 怨恨이 많은 社會를 構造 改善하여 和樂한 社會를 만들 수 있다는 正統倫理의 提示이다.

東西 古今에 걸쳐 倫理學者 哲學者가 많고 學者마다 各 學說이 紛紛하나 總論的으로 倫理는 많은 人類가 共生 共樂하며 살아가는 原理를 찾자는 것이요 줄여서 「相生하자」는 것이니 이 原則에서 벗어나면 참 倫理라 할 수 없다. 셋째 宗旨는 倫理 道德學의 宗教임을 明示하였다.

넷째 道通眞境은 綜合的 宗旨라 할만큼 個人的 人類社會的 目的論을 간결 명료하게 집약하였다.

各論에서 수차 언급한 바와같이 個人들이 入道한 까닭은 한 마디로 「道通」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東洋人치고 漢字를 안다면 「道通」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터이건만 細部專攻에 特技 保有者로서의 道通을 常用하면서 大道通은 모른다.

筆者는 韓國의 半萬年 歷史이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고 할 때 통계로 李舜臣을 첫째로 꼽는 사람이 많을 터인데, 그 이유는 半萬年 民族史 단절 위기에서 이어주었기 때문이니 理由가 正當하다. 어떻게 倭敵을 打破할 수 있었든가 할 때 구구한 答이 있으나 「李舜臣이 道通했기 때문이다」라는 答은 筆者가 처음일 것이다. 바로 李舜臣의 偉業이 道通이고, 그것은 先天道通 즉 過去型 道通이요, 未來創造型 後天道通은 前無 道通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 條件만은 現世 眞境 仙境 만드는 사람일 것이다. 醫統을 통한 사람이어야 하고 至誠 至善할 것이므로 感天하고 通神明할 것이니 神人調化가 可能하며 萬事 如意 亨通할 것이다.

이렇게 大巡眞理會의 宗旨를 宗教的으로 合理化하지 않고 宇宙自然科學 生物學 哲學 倫理學 道德學의 側面에서 종합적으로 照明하여보고 마무리 짓는다.

【참고문헌】

- 安鍾沄 「世界化時代와 相生倫理의 要請」 大巡思想論叢 第1輯, 1997
安鍾沄 「理想的 人間性 形成 위한 陰陽合德論」 大巡思想論叢 第2輯, 1997
安鍾沄 「哲學的 側面에서 본 神人調化論」 大巡思想論叢 第3輯, 1997
安鍾沄 「倫理學的 側面에서 본 解冤相生論」 大巡思想論叢 第4輯, 1998
安鍾沄 「歷史上 道通人과 到來할 道通眞境 推論」 大巡思想論叢 第5輯, 1998
安鍾沄 「醫統에 關한 研究」 1, 2, 3, 4部, 大巡思想論叢 第2輯~5輯
(참고문헌은 大巡思想論叢 第1輯~5輯 筆者의 論文에 소개되었음)